

해외출장
보고서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 · 조사 · 지원 사업

일본 전통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 및 전통 목조주택 진흥기관 사례조사

2018.4.1 - 4.6
일본(교토, 카나자와)

신치후 연구위원, 박진기 · 김해리 부연구위원

(a u 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차 례

제1장 출장 개요 및 업무수행 계획	1
1. 출장 개요	1
2. 업무수행 계획	2
제2장 관련기관 방문 및 면담 조사	3
1. 일본의 목조주택 생산체계 관련 조사	3
(1) 일본 목조주택 생산체계에 관한 전문가 면담	3
(2) 주식회사 야스이모쿠공무점 관계자 면담	18
2. 전통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사	27
(1) 교토건축전문학교·교토부건축공업협동조합 관계자 면담	27
(2) 카나자와직인대학교 관계자 면담	36
3. 전통 목조주택 진흥 관련 조사	47
(1) 교마찌야재생연구회·교마찌야작사조 관계자 면담	47
(2)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 견학	52
(3) 교마찌야 보전·활용사례 하타케주택 견학	57
제3장 출장 성과	63
[부록] 취득자료	67

제1장 출장 개요 및 업무수행 계획

1. 출장 개요

- 사업명 :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
- 대상지 : 일본 교토(京都), 카나자와(金沢)
- 기 간 : 2018년 4월 1일(일) - 4월 6일(금), 5박 6일
- 목 적 : 1. 일본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 제도 및 관련 기관 운영 현황 파악
2. 일본의 전통 목조주택 진흥 정책 및 관련 기관 운영현황 파악

2. 업무수행 계획

■ 관련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조사

- 일본의 목조주택 생산체제 파악: 타카다 미츠오 교토대 명예교수(교토 미술공예대학교 공예학부장), 키도와키건축 대표 키도와키 토시키 도편수 면담
- 일본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 제도 및 관련 기관 운영 현황 파악: 교토부건축공업협동조합 키무라 타다노리 대표이사, 교토건축전문학교 사노 하루히토 교장, 주식회사 야스이모쿠공무점 후쿠이 무츠미 총무이사, 사이토 미츠요시 시공이사, 카나자와직인대학교 나카다 마사하루 사무장 면담
- 일본의 전통 목조주택 진흥 정책 및 관련 기관 운영현황 파악: 교마찌 야재생연구회 코지마 후사에 이사장 면담, 교마찌야작사조 키노시타 료이치 대표이사 면담
- 주요 사례 조사: 하타케주택 거주자 면담 및 견학(전통적 생활문화 계승을 위해 주택 일부를 개방하여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 견학(지역의 전통 목조주택 및 역사경관 보전과 진흥 정책,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사례)

3.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출발지	도착지	일 정	기 타
4월1일 (일)	09:35 11:20	인천 ICN	오사카 KIX	출국	대한항공 KE723
	14:00 16:00	오사카 KIX	교토	도시 간 이동 (はるか(京都市))	철도 이용
	17:00 20:00	교토		[회의1] 일본의 목조주택 생산체계에 관한 면담 (면담 대상: 타카다 미츠오(高田 光雄) 교토대 명예교수, 키도와 키 토시키(木戸脇俊樹) 키도와키건축 대표)	
4월2일 (월)	09:00 12:00	교토		[회의2]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현황에 관한 면담 (면담 대상: 교토부건축공업협동조합 키무라 타다노리(木村 忠 紀) 이사장, 교토건축전문학교 사노 하루히토(佐野 春仁) 교장	2개기관 연대회의
	15:00 18:00			[답사1] 전통 목조주택 보전 사례 하타케 주택(秦家住宅) 방문 - 거주자 면담, 견학을 통해 교마짜야의 주거공간·생활문화 학습 (면담 대상: 거주자 하타 메구미(秦 めぐみ) 씨)	
4월3일 (화)	10:00 13:30			[회의3] 전통 목조주택 진흥 기관 운영현황에 관한 면담 (면담 대상: 교마짜야재생연구회 코지마 후사에(小島 富佐江) 이 사장, 교마짜야작사조 키노시타 료이치(木下 龍一) 이사장	2개기관 연대회의
	15:00 18:00			[회의4] 전통 목조건축 시공업체의 인력양성 체계 파악 (면담 대상: (주)야스이모쿠공무점(安井奎工務店) 본사 후쿠이 무 츠미(福井 睦) 총무이사, 사이토 미즈요시(齋藤 光義) 시공이사	
4월4일 (수)	09:00 12:00	교토		[답사2]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京都市景観まちづくりセン ター) 견학 - 시설 견학 및 참고자료 수집 ^{※1}	
	17:06 20:15	교토	카나 자와	도시 간 이동 (のぞみ40号(N700系)(東京行) -환승(오사카)- サンダーバード37号(金沢行))	철도 이용
4월5일 (목)	09:00 12:00	카나 자와		[회의5] 목조건축기술자 양성기관 운영현황에 관한 면담 (면담 대상: 카나자와직인대학교(金沢職人大学校) 나카다 마사하루(中田 政晴) 사무장)	
	15:00 18:00			[답사3] 전통 목조건축물 밀집지역 보전 사례 히가시차야마찌(ひ がし茶屋街) 방문 ^{※2}	
4월6일 (금)	12:00 13:55	코마츠 KMQ	인천 ICN	귀국	대한항공 KE776

※1 현지 전문가 추천에 따라, 견학대상을 타케나카목수도구관(竹中大工道具館)에서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京都市景観まちづくりセンター)로 변경

※2 현지 사정(카나자와 직인대학교는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수업은 매주 금·토·요일에만 실시)에 따라, 일정을 카나자와 직인대학교 수업 참관에서 전통 목조건축물 밀집지역 보전 사례 답사로 대체

제2장 관련기관 방문 및 면담 조사

1. 일본의 목조주택 생산체계에 관한 조사

(1) 일본 목조주택 생산체계에 관한 전문가 면담

■ 개요

- 일시: 2018년 4월 1일(일) 17:00~20:00
- 장소: 시란카이칸(芝蘭会館) 별관 지하 1층 회의실
- 면담 대상
 - 타카다 미츠오(高田 光雄): 교토대 명예교수(교토미술공예대학 공예학부장·건축학과장)
 - 키도와키 토시키(木戸脇 俊樹): 키도와키건축 대표(일본전통건축기술자보존회 인정기술자)

■ 면담 내용¹⁾

- 일본의 주택 현황: 단독주택의 비율이 압도적
 - 목조 단독주택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
 - 1973년에 전국의 주택 호수가 세대원 수를 상회(1968년에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호수가 세대원 수를 상회하는 현상이 일어남)
 - 주택 재고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이 계속되는 상황
 - 목조주택 건축 시 재래공법(공법에 대해서는 이하에 설명)이 많이 사용되며, 종래에는 목재의 가공을 사람이 했지만 최근에는 목재 가공의 프리컷화를 고조. 마감 공사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벽의 마감에 미장공의 직능이 별도로 요구되었으나 최근에는 마감까지 완성된 벽체를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해 짐
- 일본의 목조주택 구축 방식: 전통공법/ 재래공법/ 2×4/ 프리패브
 - 전통공법(그림1, 그림2)

돌기초 위에 바닥과 기둥, 보를 세워 이음과 맞춤의 구법을 사용해 구축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옥 구축 방식과 유사. 지진 재해 시 진동에 따라 구조체가 흔들리면서 지진력을 흡수함으로써 재래공법을 사용한 목조주택에 비해 건축물의 붕괴를 예방하기가 수월하다고 평가됨. 1950년 건축기준법 제정 이후 신축 불가한 상태였다가 2000년 개정을 통해 전통공법을 통한 신축이 가능해 짐

1) 면담은 PPT를 이용한 미니세미나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당시 제시된 영상자료의 출처를 참고하여 일본 관련 기관 포털의 원자료를 검색 및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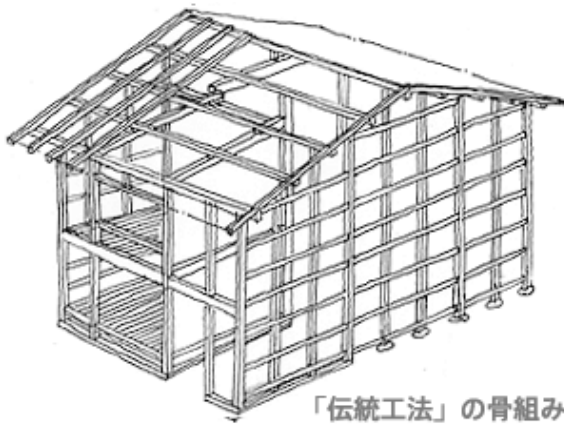


그림 1 전통공법의 골조

(출처: <http://machiya-shien.net/archives/1>)



그림 2 전통공법의 내진 이미지

(출처: <http://machiya-shien.net/archive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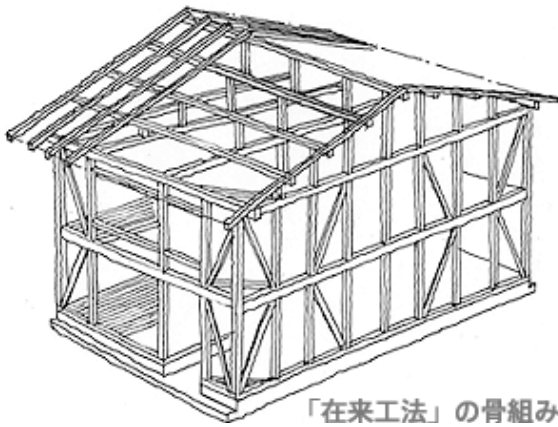


그림 3 재래공법의 골조

(출처: <http://machiya-shien.net/archive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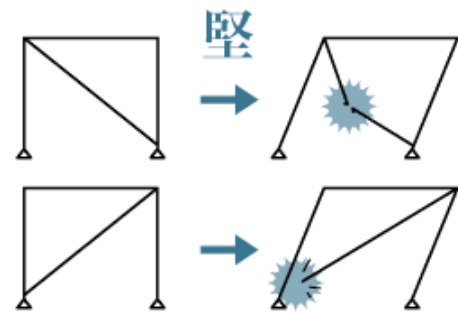


그림 4 재래공법의 내진 이미지

(출처: <http://machiya-shien.net/archive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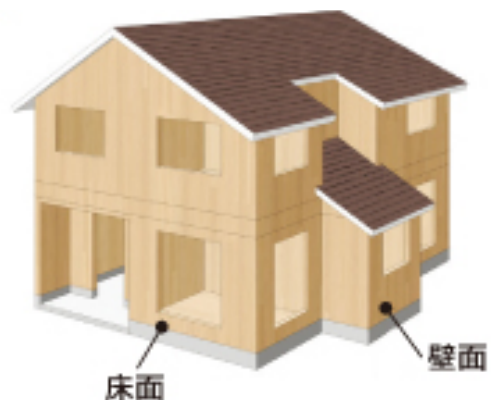


그림 5 재래공법(좌)과 2×4공법(우)

(출처: <http://www.kenbrick.co.jp>)

－ 재래공법(그림3, 그림4)

콘크리트기초와 바닥을 앵커볼트로 결속시키고 바닥 위에 기둥과 보를 세워 부재와 부재를 철물로 긴결하여 구축하는 방식. 지진 재해 시 진동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버티는 성질을 지닌 한편, 한계내력을 초과하는 시점에 다다르면 일시에 붕괴된다는 점에서 전통공법의 유연한 골조와 비교대상이 되기도 함

－ 전통공법과 재래공법의 차이

전통공법은 돌기초 위에 수직수평 부재를 얹고 이음과 맞춤에 의해 구축하는 반면, 재래공법은 내진성능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기초 위에 바닥을 고정시키고 수직수평 부재 이외에 사선재를 첨가하며 각 부재를 철물로 긴결

－ 재래공법과 2×4공법(그림5)

재래공법은 전통공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초부분과 사선재 첨가, 철물사용 이외에는 전통공법과 유사성을 지님. 2×4공법은 서구에서 유입된 방식으로 벽식 구조. 전통공법이나 재래공법에 비해 내부공간의 기밀성·단열성이 높다고 평가됨

－ 공업화공법(프리패브)

공장에서 생산된 규격화 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안정된 품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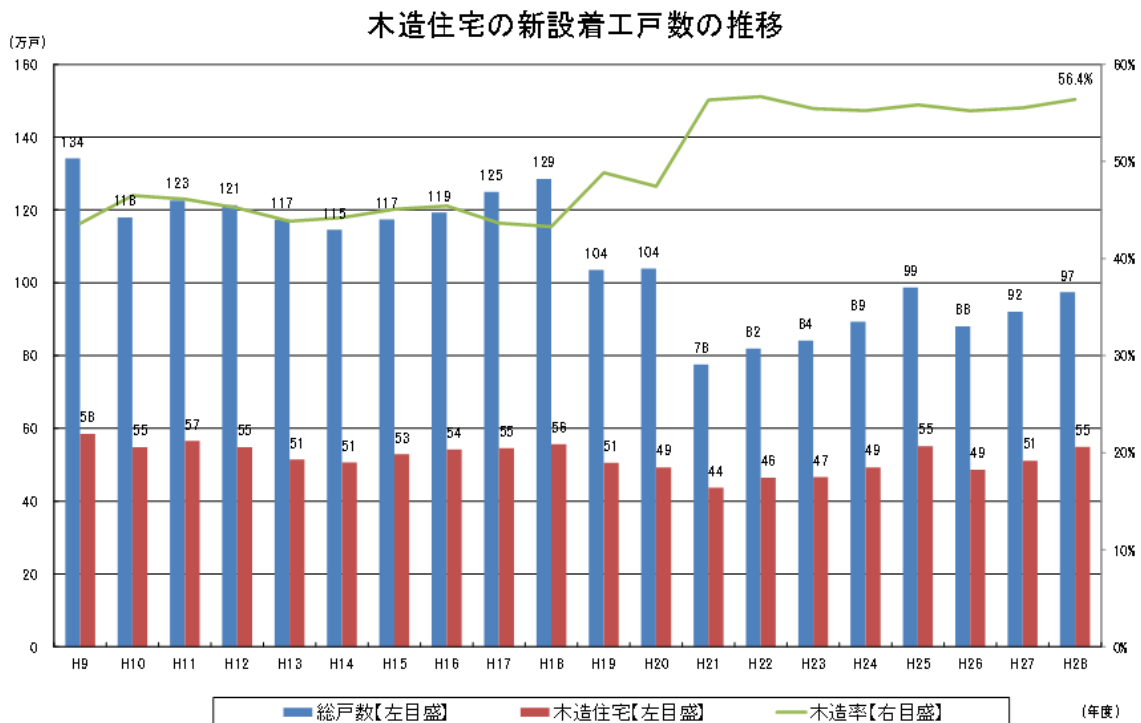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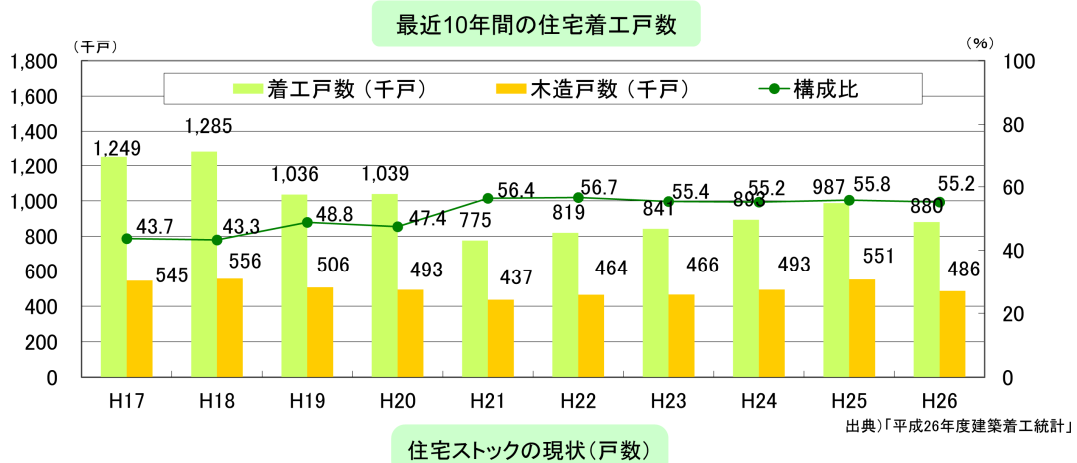
그림 6 일본의 목조주택 신축 착공 호수
(출처: 국토교통성 발표자료 www.mlit.go.jp/common/001133655.xlsx)

주택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평가됨

- 일본의 목조주택 신축 착공 호수: 20년 간 큰 변동 없이 약 50% 점유
 - 일본 국토교통성 발표자료에 의하면, 최근 20년 간 주택 신축 착공 호수는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목조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50%안팎을 점유해 왔으며, 2017년 기준으로 주택 신축 착공 호수의 56.4% 점유(그림6)
- 일본의 주택 착공 호수 및 주택 재고 현황: 목조주택이 과반수 차지
 - 일본 국토교통성 발표자료(건축 착공 통계자료(2014))에 의하면, 최근 10년 간 주택 착공 총 호수의 55.2%가 목조주택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목조주택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음(그림7)
- 일본의 공업화주택 착공 호수 현황: 15% 미만으로 여타 공법 우세
 - 일본 프리패브건축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착공된 공업화(프리패브)주택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으며 전국 주택 중 점유율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14.4%로, 목조주택 구축 방식에 있어서도 여타의 공법(전통공법, 재래공법, 2×4 공법)이 공업화공법보다 우세함(그림8)

住宅着工戸数及び住宅ストックの現状

国土交通省



	総数			内訳					
	総数 A	木造 B	木造割合 B/A	一戸建て			共同建て		
				一戸建て C	木造 D	木造割合 D/C	共同建て E	木造 F	木造割合 F/E
住宅数 (万戸)	5,210 (4,960)	3,011 (2,923)	58% (59%)	2,860 (2,742)	2,637 (2,542)	92% (93%)	2,350 (2,215)	374 (381)	16% (17%)

그림 7 일본의 주택 착공 호수 및 주택 재고 현황

(출처: 국토교통성 발표자료 <http://www.mlit.go.jp/common/001114083.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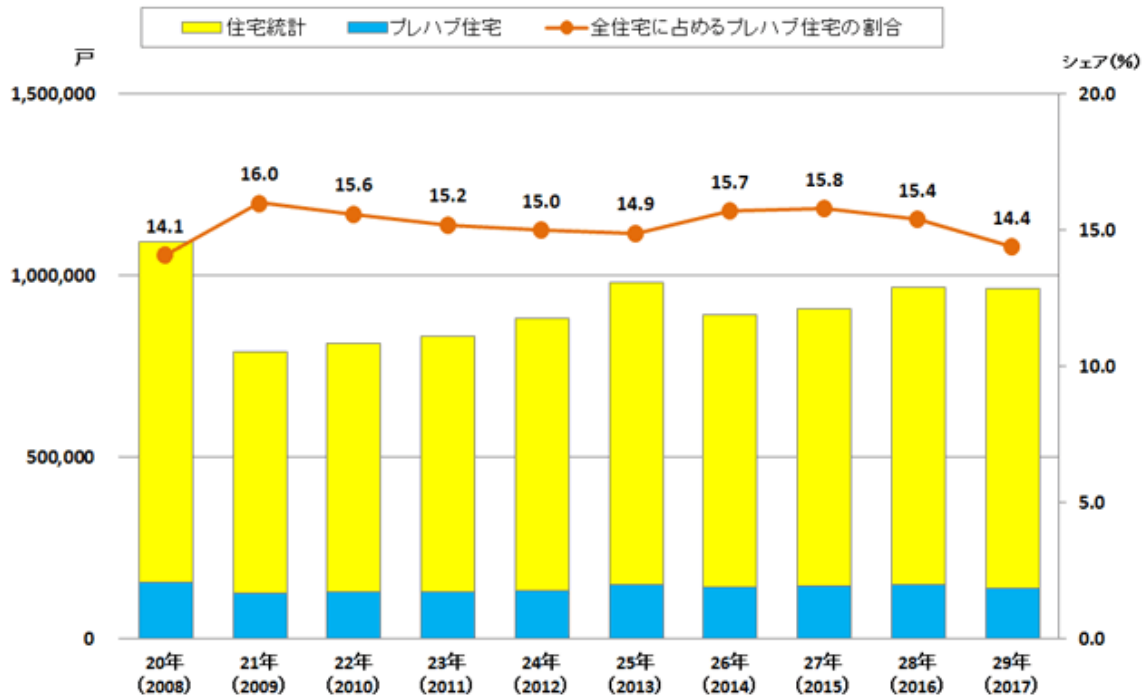


그림 8 일본의 공업화주택 착공 호수 현황
(출처: 프리패브건축협회HP <http://www.purekyo.or.jp/present-situation.html>)

新設着工住宅における構造別・建て方別割合(H26年度)

国土交通省

新設着工住宅における構造別・建て方別割合 (H26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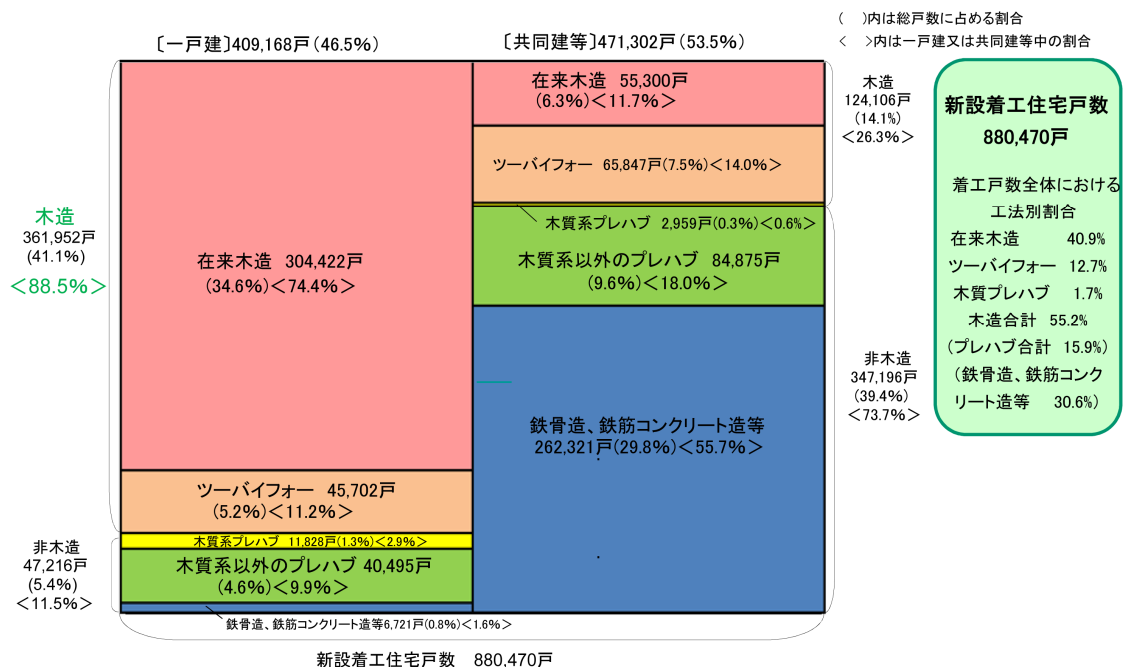


그림 9 신축 착공 주택의 구조별·구축 방식별 비율
(출처: 국토교통성 발표자료 <http://www.mlit.go.jp/common/001114083.pdf>)

- 신축 착공 주택의 구조별·구축 방식별 비율: 재래공법 우세

- 일본 국토교통성 발표자료(2014)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착공 호수의 88.5%를 목조주택이 점유. 구축 방식별로 보면 주택 착공 총 호수의 40.9%를 재래공법이 점유하며, 2×4공법이 12.7%, 공업화공법이 1.7%로 미미한 수준(그림9)

- 재래공법의 기계 프리컷화 비율: 프리컷 부재 사용 고조

- 일본 국토교통성 발표자료에 의하면, 기계 프리컷 공장의 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반면, 기계 프리컷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재래공법에 의해 구축된 목조주택 중 프리컷 부재를 사용한 비율은 88%에 육박(그림10)

- 전통적 목조주택을 짓기 위해 요구되는 직능

- 석공·목공·미장·판금·와공·타타미·창호·표구·조원 등의 직능을 보유한 각각의 직업군이 존재. 종래에는 재래공법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재래공법에 사용되는 목재가공 및 내외부공간 마감공사의 프리컷화율이 높아지고 있음

在来工法における機械プレカット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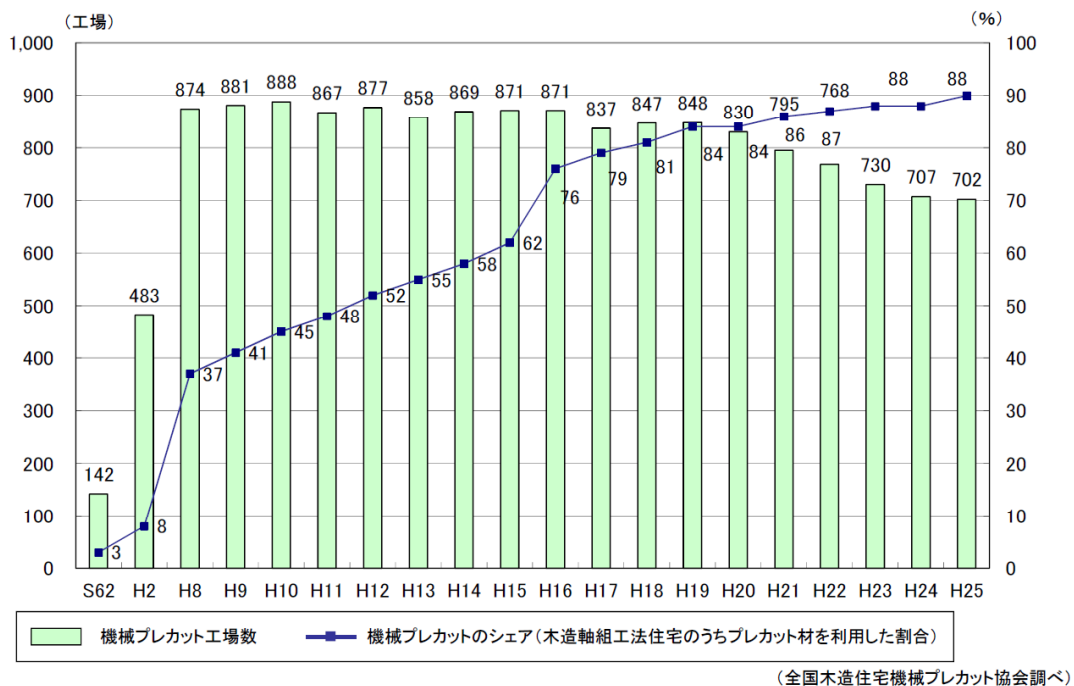


그림 10 재래공법의 기계 프리컷화 비율

(출처: 국토교통성 발표자료 <http://www.mlit.go.jp/common/001114084.pdf>)

• 목수 취업자 수 추이: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 목수 고령화 현상

- 일본 국토교통성 발표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목수의 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한편, 60세 이상의 고령 목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30세 미만의 청년층 목수 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 목수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목수가 가장 많이 존재하며, 젊은 목수인력 양성이 목조건축 생산체계를 지탱하기 위한 현안 과제로 여겨지는 점은 한국과 일본이 동일(그림11)

• 목조주택 공급 주체: 재래공법에 의한 생산 규모 영세(그림12)

- 일본 국토교통성 발표자료(2013년)에 의하면, 단독주택 생산 시 공법별·연간 수주 호수별 점유율은 재래공법을 통한 공급이 전체 호수의 70%. 재래공법으로 생산되는 목조주택 연간 수주 건수는 5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53.3%. 그 중에서도 연간 수주 건수가 1~4호에 그치는 경우가 18.4%로 재래공법에 의한 목조주택 생산 규모 영세
- 대형 하우스메이커 건설사에서 재래공법으로 생산하는 목조 단독주택의 경우 그

大工就業者数の推移

国土交通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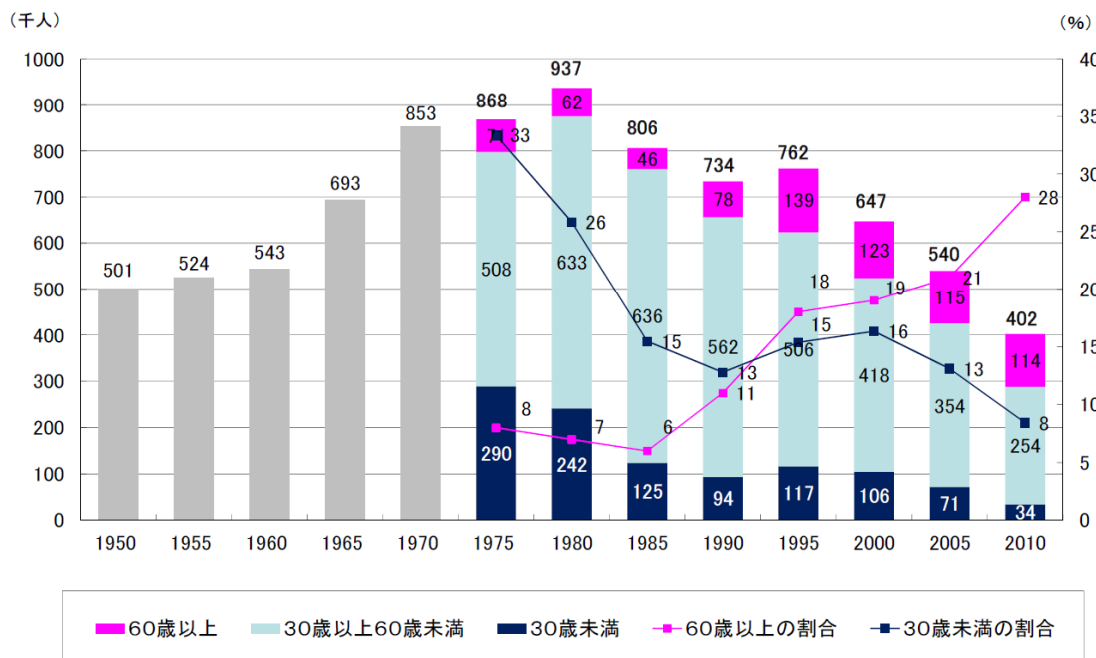


그림 11 목수취업자수 추이

(출처: 국토교통성 발표자료 <http://www.mlit.go.jp/common/001114084.pdf>)

木造住宅の担い手の現状

○ 在来工法の戸建て注文住宅の約53%は中小の大工・工務店が供給。

戸建て住宅の工法別・年間受注戸数シェア(請負のみ) 【平成25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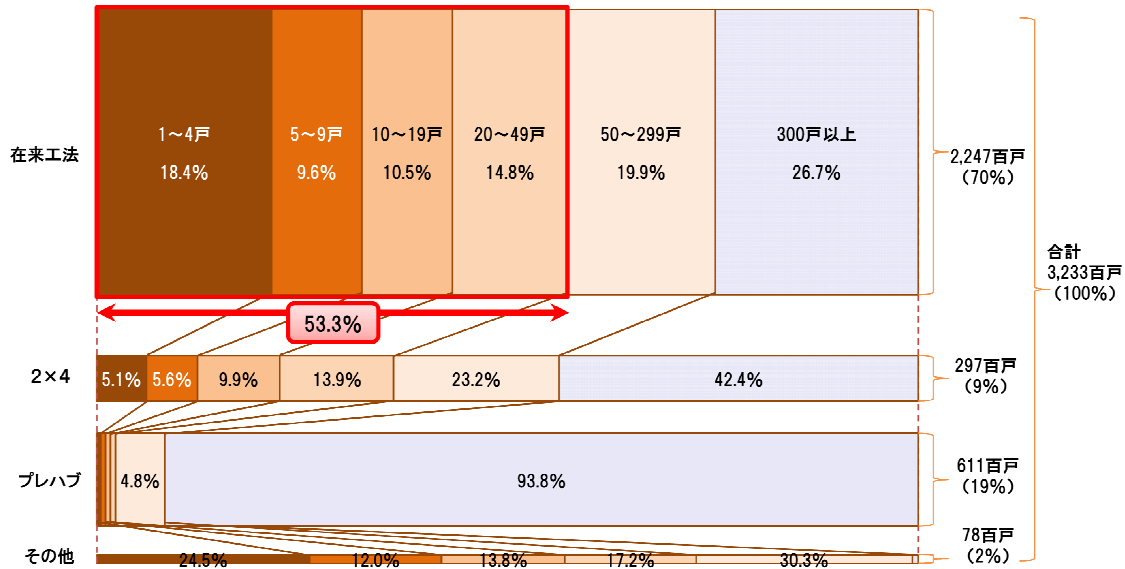


그림 12 목조건축 생산주체 현황

(출처: 국토교통성 발표자료 <http://www.mlit.go.jp/common/001114084.pdf>)

【H24当初予算】木造住宅施工能力向上・継承事業

平成24年度予算 9.9億円

木造住宅の生産過程や省エネ施工技術、維持管理・リフォーム技術等に関する幅広い知識・ノウハウを有する人材を育成するため、木造住宅の施工に関する住宅生産事業者の能力の向上及び技術の継承に対する支援を行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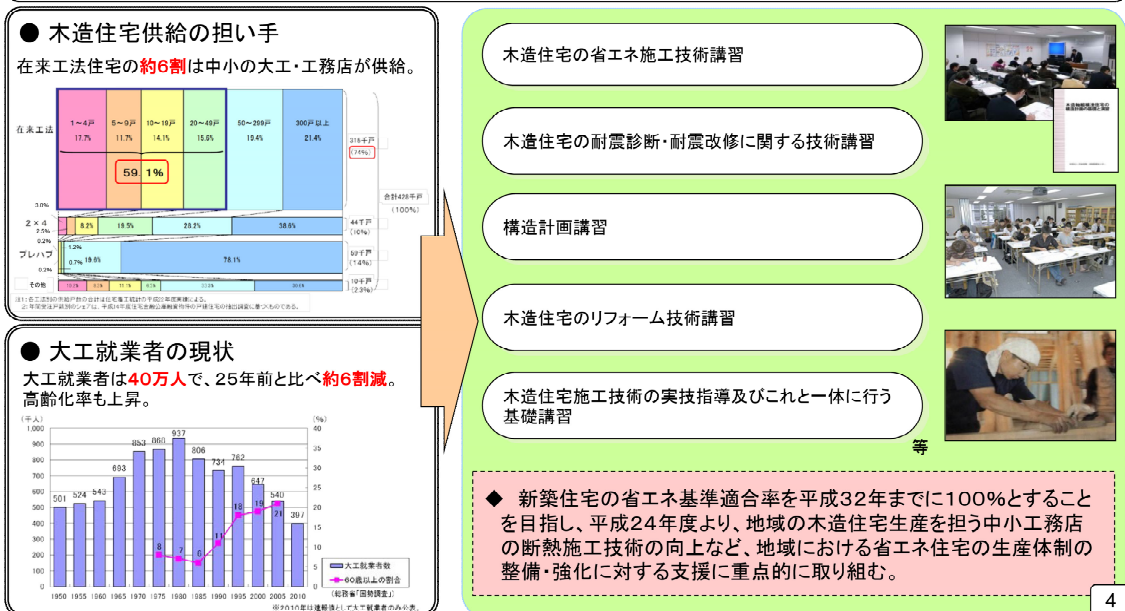


그림 13 일본 국토교통성의 목조주택 시공능력 향상·계승사업 개요

(출처: 국토교통성 발표자료 img01.ecgo.jp/usr/sumai/img/121023092108.pdf)

규모가 연간 300호 이상 . 한편, 현재 교마찌야(京町家)²⁾를 비롯한 전통적 목조주택 생산 시 주로 이용되는 재래공법의 경우 그 공급 규모가 적고 공급 주체 또한 목수 직영 운영이거나 중소기업 공무점으로 열악한 실정

- 대형 하우스메이커 건설사에서 연간 생산하는 목조 단독주택은 93% 이상이 프리패브공법에 의해 구축(그림12)

• 중앙부처의 노력: 목조주택 시공능력 향상·계승 지원 사업(그림13)

- 소관 부서: 일본 국토교통성 주택국 목조주택진흥실
- 사업명 및 주요 내용: ‘목조주택 시공에 관한 주택생산업자 능력 향상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지원 사업’. 목조주택 저에너지 시공기술 강습, 목조주택 내진진단·내진개수에 관한 기술 강습, 구조계산 강습, 목조주택 리폼 기술 강습, 목조주택 시공 기술 실기 지도 및 기초 강습 등을 실시
- 상기 사업은 전통적인 목조건축기술에 특화된 지원사업이 아님. 전통적인 목조건축기술인력의 육성에 대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은 드물며, 민간의 자발성에 의해 관련 기관이 운영되고 전통건축기술교육을 받는 상황(그림13)

• 건축기준법과 전통공법

- 1950년 건축기준법 제정 이후, 전통공법에 의해 구축된 기존의 전통적 목조건축물은 ‘기존부적격’건축물로 분류되고, 사실상 전통공법에 의한 목조주택 신축이 불가능하게 됨
- 당시, 전통공법의 존재, 전통공법에 의해 축조된 기존 주택의 존재는 인정
- 1998년 건축기준법 개정 이후, 목조건축물에 대한 ‘성능규정화’가 실시되어 내진을 비롯한 성능 검증이 의무화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지녔다고 검증되면 신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그 이전까지는 ‘사양규정’이 있어 사양이 동일해야만 합법이었던 상황)
- 2000년 ‘한계내력계산’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지녔다고 검증된 경우 전통공법에 의한 신축이 합법화 되었으며, 이로써 교토시에서도 법제도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전통공법으로 교마찌야를 신축할 수 있게 됨
- 전통공법에 의한 목조주택 신축이 합법화 되었으나 고가의 한계내력검사 비용, 공사 인건비 등을 부담하기 어려워 아직까지는 법제도의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적인 교마찌야 수요층에서는 전통공법보다 비용이 저렴

2) 교토의 도시경관을 특징짓는 전통적인 목조의 도시주택이다. 1950년 이전에 교토(京都)시내에 지어진 마찌야(町家: 상인, 직능인의 주택이라는 의미를 지닌 직주공존(職住共存)의 전통적인 목조의 도시주택)를 가리키는 말로, 1965년 민가 붐의 영향을 받은 조어이다.

하면서도 유사한 외관을 구사할 수 있는 재래공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 반면,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통공법을 고수해 구축방식과 내외부공간의 의장 등 전통적인 목조주택 본연의 공간 질서와 매력, 전통적인 생활문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층에서는 고가의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전통공법을 선택하기도 함

• 건축기준법과 재래공법

- 1950년 건축기준법 제정 이후, 전통공법에 의해 구축된 기존의 전통적 목조건축물은 ‘기존부적격’건축물로 분류되고, 사실상 전통공법에 의한 목조주택 신축이 불가능하게 됨.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전통적 목조주택과 유사한 방식으로 축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재래공법’
- 재래공법은 목수들이 일반적인 직능에 의해 축조 가능한 방식이며, 목수들 중에서도 고급 직능을 보유했다고 인정받는 도편수 정도의 인력이 전통공법에 의한 목조주택 축조 가능

• 지진과 전통공법 vs 재래공법

- 전통공법은 “감재(減災)” vs 재래공법은 “방재(防災)”
- 돌기초(초석) 위에 기둥을 비롯한 목가구를 올려 집을 축조하는 전통공법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림에 반응해 집이 뜨도록 만들어짐
- 콘크리트기초와 바닥, 기둥을 앵커볼트로 긴결시키고 주요 주요구조부재를 철물로 접합하며 사선재를 첨가함으로써 부재 간 결속력을 강화한 재래공법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면 토지에 고착화 된 집이 흔들림에 강하게 저항하도록 만들어짐

• 키도와키 토시키(木戸脇 俊樹) 도편수의 경험

- 일본에서는 목수로서는 특이한 이력(고학력, 일본 굴지의 전통건축전문회사 근무, 유명 도편수에게 사사) 보유
- 교토대학교(Kyoto Univ.)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건축구조학(석사) 전공 후, 일본 굴지의 전통건축전문회사인 야스이모쿠공무점(安井杓工務店) 본사 근무경험을 거쳐, 저명한 도편수 故 키노시타(木下 孝一) 씨에게 사사한 후 현재 개인 사무소(키도와키건축)를 운영 중
- 대학교 및 대학원 건축교육에서 목조건축에 대한 실천적 지식과 이해를 함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석사학위 취득 후 24세에 야스이모쿠공무점 입사
- 입사 당시 동기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였으며 나와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가 일반적. 나보다 앞 세대의 사람들은 중학교 졸업 후 입사하는 경우가 많았음

- 물리적 연령대가 나보다 어린 입사 선배들이 지닌 현장 경력과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전투적으로 일을 배웠으며, 현재 야스이모쿠공무점의 시공총괄 이사이신 사이토 미츠요시(齋藤 光義) 도편수님에게 3년 간 사사
- 야스이모쿠공무점은 일본 굴지의, 굉장한 희소 가치가 있는 전통건축전문회사로 전통공법에 관련된 일련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음. 교토 영빈관, 카츠라리큐의 다실 등 유명한 전통건축 공사에 많은 경력을 보유한 회사임
- “목수로서 10년 정도 일하면 집 한 채 정도는 맡길 수 있겠지.”라는 것이 통념이긴 하나 각 사람의 기술 습득능력에 따라 그 기간이 다름
- 입사 초기 3년간은 성과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선배들과 달리 잡무만 수행. 입사 4년째부터는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투입. 입사 5년차에 들어설 즈음, 일본의 목조주택 생산체계, 주택시장의 변화로 인해 전통건축전문회사인 야스이모쿠공무점에서도 프리컷방식으로 목재를 가공하고 철골조 주택공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했으며, 이에 회의를 느낌(당시 일시적 상황이었으며 현재는 전통건축에 주력)
- 그즈음 책을 통해 킨카쿠지(금각사 金閣寺) 건축에 관여한 키노시타 코이치(木下 孝一) 도편수를 알게 되고 그에게 사사하고 싶다고 생각(키노시타 도편수는 일본의 스키야(数寄屋)건축을 비롯한 전통건축의 장인)
- 키노시타 도편수를 찾아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야스이모쿠공무점에서 총 5년여의 근무를 마치고 1998년부터 5년 간 키노시타 도편수에게 사사
- 키노시타 도편수에게 사사하기 시작한 1998년은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어 전통공법에 의한 목조건축 신축이 사실상 합법화 되는 시기여서 전통건축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음
- 전통건축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야스이모쿠공무점이 희소성이 뛰어난 회사이지만 개인 업체를 운영하며 철저하게 장인의 가치관으로 건축을 구현해 내는 키노시타 도편수는 시대적으로 더욱 희소성이 있는 존재였음(2005 작고)
- 야스이모쿠공무점과 키노시타 도편수 밑에서 일할 때, 기업과 개인이라는 경영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은 동일. ‘현장에서 보는 것, 본 것을 해 보는 것, 실패를 통한 배움’의 과정 반복
- 야스이모쿠공무점, 키노시타 도편수 밑에서의 경험을 통해 현재는 개인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주택 뿐 아니라 사찰건축도 관여할 수 있게 됨. 훌륭한 회사, 훌륭한 선생을 만난 것은 나의 목수인생에서 큰 자산
-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작은 것에도 장인정신을 가지고 최선, 최고라고 생각되는 건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도편수로서, 건축가로서 추구하는 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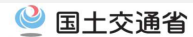
• Q&A

- Q: 일반 목조주택 공급 시 프리컷이 이미 일반화 되는 상황인데 전통적 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합리적일까? 수요는 단가와 직결된다. 전통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법상의 타협점을 찾는 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A: 전통공법과 프리컷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체 공사의 10% 정도만 장인이 개입해도 결과물의 질은 향상된다. 다만 조화의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묘안을 찾지 못했다. 또, 전통공법을 구사할 수 있는 장인의 수가 적고 전통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선불리 전통공법과 프리컷의 조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에게 위험부담이 있는 일이기도 하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도 선결과제이다. 가능하다면 교토와 같은 역사도시에서는 전통공법에 의한 주택 공급을 제도적으로 장려했으면 한다. [키도와키 토시키 도편수]
- A: (재래공법이 아닌)전통공법으로 지은 주택 수요자의 경우, 단지 전통공법 적용여부 뿐만 아니라, 전통적 의장 요소에 대한 이해와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수요층이 원하는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통공법의 경우 ‘한계내력계산’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성능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계산 비용이 1천만 원 가량 소요되며 교토시에서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오사카까지 가야 한다. 교마찌야(京町家, 교토의 전통적 목조주택)의 공사비가 3억 원 가량 소요된다고 봤을 때 한계내력검사 1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통공법의 교마찌야를 개수할 경우에도 한계내력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다. 비용과 절차 면의 까다로움 때문에 다수의 교마찌야 수요층이 전통공법이 아닌 재래공법을 선택한다.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지역은 교토 정도여서 극적 변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타카다 미츠오 교토대 명예교수]
- Q: 전통 목조주택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시 그 추진 주체는 누구인가?
- A: 상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가, 시민의식 등 지역 역량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은 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건축기준법 제3조 제1항 제3호(그림14)’에 의거해 지역 조례에 의해 지역 건축자산을 보존·활용 할 수 있다. 교토시의 경우 ‘교토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12.4.1.시행)’를 제정, 운영 중이다. 2013년 조례를 개정해 교마찌야, 근대 건축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목조건축물의 경우 최대 200만 엔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당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한 가부 결정은 ‘건축심의회’의 판단에 따른다. [타카다 미츠오 교토대 명예교수]

○ ‘건축기준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적용 제외

- 일본어 원문

建築基準法の適用除外について



(適用の除外)

第三条 この法律並びにこれに基づく命令及び条例の規定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建築物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一 文化財保護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十四号）の規定によつて国宝、重要文化財、重要有形民俗文化財、特別史跡名勝天然記念物又は史跡名勝天然記念物として指定され、又は仮指定された建築物

二 旧重要美術品等の保存に関する法律（昭和八年法律第四十三号）の規定によつて重要美術品等として認定された建築物

三 文化財保護法第百八十二条第二項の条例その他の条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現状変更の規制及び保存のための措置が講じられている建築物（次号において「保存建築物」という。）であつて、特定行政庁が建築審査会の同意を得て指定したもの

四 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掲げる建築物又は保存建築物であつたものの原形を再現する建築物で、特定行政庁が建築審査会の同意を得てその原形の再現がやむを得ないと認めたもの

2・3 (略)

그림 14 일본 ‘건축기준법의 적용 제외’ 관련 법조항

(출처: 국토교통성 발표자료 http://h-ar.net/cms/wp-content/uploads/2017/03/20170325_HARNET4th_mlit-1.pdf)

- 한국어 번역문

(적용의 제외)

제3조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명령 및 조례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一 문화재보호법(쇼와 25년 법률 제214호) 규정에 의해 국보, 중요문화재, 중요유형민속문화재,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서 지정되거나 가지정 된 건축물

二 구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쇼와 8년 법률 제43호) 규정에 의해 중요미술품 등으로서 인정된 건축물

三 문화재보호법 제182조 제2항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현상 변경 규제 및 보존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는 건축물(다음 호에서 「보존건축물」이라 함)이며, 특정 행정청이 건축심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것

四 제1호 혹은 제2호에 속하는 건축물 또는 보존건축물이었으나 원형을 재현하는 건축물로, 특정 행정청이 건축심의회의 통의를 얻어 그 원형의 재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것

(생략)

○ 7割以上の国民が木造住宅を指向。

質問: 新たに住宅を建てたり、買ったりする場合、どんな住宅を選びたい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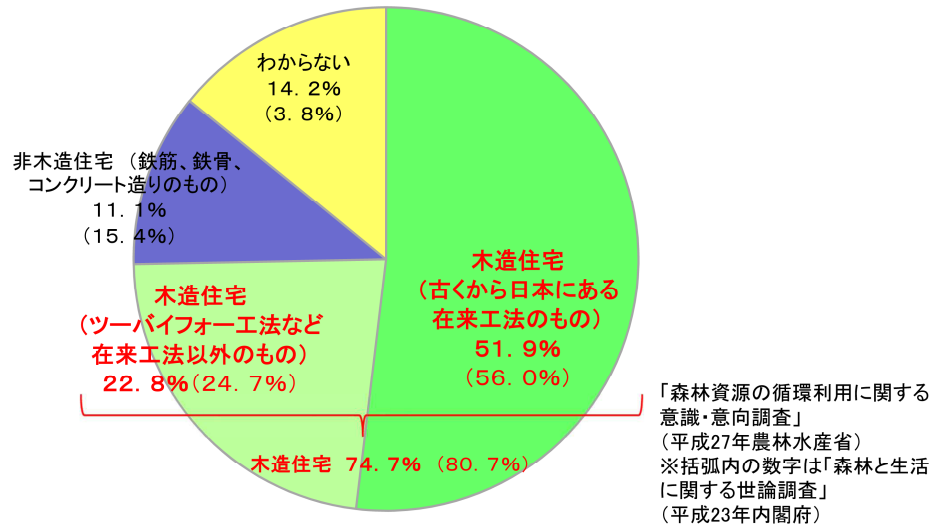


그림 15 목조주택에 대한 국민 수요-7할 이상의 국민이 목조주택 지향

(출처: 국토교통성 발표자료 <http://www.mlit.go.jp/common/001114085.pdf>)

- Q: 목조 단독주택의 비율이 특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목조 단독주택보다 집합주택(아파트) 공급이 확대 될 때 건설시장도 활성화 될 텐데.
- A: 국민 정서상 목조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다(그림15). 일부 대도시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목조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도가 높기 때문에 주택 건설시장도 자연히 이에 발맞춰 형성되어 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목조건축물을 육성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전후 황폐화된 삼림을 복구하기 위해 조림사업을 했고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그 나무들을 유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목조주택 진흥정책에 발맞춰 목조주택 건설시장이 활성화된 배경도 있다. 정부의 정책과 국민 수요의 방향성이 같았다고 보아도 좋겠다. [타카다 미츠오 교토대 명예교수]
- Q: 전통공법을 구사할 수 있는 목수인력이 줄어서 전통공법에 의한 목조주택 신축 수도 줄고 있는 것인가?
- A: 전통공법을 구사할 수 있는 목수인력을 보유하고 일을 하는 경우는 대다수가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자연히 산업의 규모도 작다. [타카다 미츠오 교토대 명예교수]

- Q: 국가 차원에서 장인을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 A: 설계에 대한 업무 독점 권한이 ‘건축사’에게 주어진다. 예를 들면 교마찌야를 신축 혹은 개수하기 위해서는 전통공법 재래공법 할 것 없이, 규모에 따라서 목조기술자 혹은 1급, 2급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한다. 도편수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격증이 없으면 목조주택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책임자로서 공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 목수에게 부여하는 국가 차원의 자격증은 없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 제도들이 있다. 본인(키도와키 도편수)의 경우 민간단체인 ‘일본전통건축기술자보존회’에서 부여하는 ‘일본전통건축기술자 보존회 인정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 자격은 문화재급 전통건축물 공사의 경우 고도의 직능을 가진 인재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키도와키 토시키 도편수]



그림 16 타카다 미츠오 명예교수 · 키도와키 토시키 도편수 면담(2018.4.1)

(2) 주식회사 야스이모쿠공무점 관계자 면담

■ 개요

- 일시: 2018년 4월 3일(화) 15:00~18:00
- 장소: 주식회사 야스이모쿠공무점(安井杓工務店) 본사 접견실
(〒617-0006 京都府向日市上植野町馬立2番地4)
- 면담 대상
 - 후쿠이 무츠미(福井 睦): 야스이모쿠공무점 총무이사
 - 사이토 미즈요시(齋藤 光義): 야스이모쿠공무점 시공총괄이사(도편수)

■ 면담 내용

• 회사 개요

- 위치: 교토 남서부 무코(向日)시(구 나가오카쿄(長岡京)시) 소재
- 인원: 일반 사무직과 시공조직(목수 그룹) 포함해 70여 명
- 창업: 공식적으로 회사의 존재가 확인된 시기는 1688년. 당시 무코신사(向日神社)의 배전 건축 기록에서 당 회사의 이름이 발견되었으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활동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추정
- 선대로부터 미야다이쿠(宮大工; 신사불각 건축이나 보수에 관여해 온 목수)에 종사하고 있으며, 야스이(安井) 가문에서는 교토의 목수 집단 안에서 교토 서부의 신사불각 건축, 보수를 관할해 왔던 것으로 전해짐
- 회사 이름의 ‘목(杓)’자는 조상들의 이름에 해당 글자가 사용되었던 것에서 유래하며, 이는 예로부터 도편수 이름에서 자주 사용되던 글자로, 12대 대표(杓右衛門)와 13대 대표(杓太郎) 때까지만 해도 이름에 목(杓)자 사용
- 현재 대표이사인 야스이 히로시(安井 洋) 대표가 15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13대까지는 대표이사 본업이 도편수로서 사업 경영뿐만 아니라 목수조직을 양성하고 총괄하는 역할까지 총체적으로 도맡아 회사를 이끌어 옴
- 현 대표의 아버지 야스이 히로시타로(安井 洋太郎) 14대 대표는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사로서 회사 경영자를 역임. 당시 아버지를 비롯해 4형제는 조부 야스이 모쿠타로(安井 杓太郎) 13대 대표의 뒤를 잇고자 했지만, 전후 일본은 전통 목조건축의 계승 발전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전후 일본의 건설시장에서는 RC조(철콘), S조(철골) 건축이 주류로 자리 잡고 목

조건축이 비주류가 되어가는 상황이었으며, 당사의 경영을 계속하기 위해 전통 목조건축 기술의 계승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는 한편 현대건축에도 발을 들임

- 국보 다실(茶室) '조안(如庵)'의 해체 이축 공사(1971), 국보 다실 '묘키안(妙喜庵待庵)' 보존 수리 공사(1977) 등 문화재 공사 경험이 쇼와(昭和)시대 카츠라리큐(桂離宮) 대수리, 다실 등의 정비공사 경력으로 이어짐
- 해외 경력: 보스턴 어린이박물관, 샌프란시스코 일미문화회관 다실, 캘리포니아주 사라토가(Saratoga)시 하코네문화교류회관 신축,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일본갤러리, 미네폴리스미술관 일본갤러리 신설 등 다수
-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쳐 사람들의 삶이 이전보다 풍요로워지면서 목조건축이 주목을 받게 되고 일반 건축물 안에 목조건축 공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RC조, S조 등의 건축기술과 목조건축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당사의 특성이 대외적으로 더욱 인정받게 됨. '쿄토 영빈관'이 가장 좋은 예
- 교토 영빈관은 모든 공정에 걸쳐 뛰어난 전통 목조기술 뿐 아니라 최신기술을 발군한 기술의 장으로, 근래에 보기 드문 사례

• 경영상의 특징, 기술 전승(보유 목수 인력 양성)방식

- 다종다양한 건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종다양한 전문직이 필요. 당사는 재정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타사들에 비해 인원수가 많은 편. 그 이유는 일반 사무직 이외에 목수, 창호 장인, 잡무 보조원 등도 사원으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
- 사원 육성 방침은 1. 좋아하는 일을 시키는 것, 2. 다양한 일을 경험시키는 것. 한 집안에서 3대에 걸쳐 일하는 경우, 15세에 입사해 50년 넘게 일하는 경우, 65세 정년이지만 계속 남아서 젊은 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재직
- 사원 70여 명 중 목수 인력은 30여 명. 8명의 도편수가 그룹단위 목수조직 운영. 목수들의 연령대 구성은 도편수가 60대, 중간층이 40~50대, 신입이 20~30대. 신입 목수들은 중간층 목수들에게, 중간층 목수들은 도편수에게 사사하는 시스템
- 대를 걸쳐 이루어진 당사의 전통 목조기술 전승은 '쿄토'라는 지역 환경의 혜택을 입어 왔다고 있다고 생각함. 교토에는 오래된 신사·사찰, 마찌야(町家), 다실(茶室) 등 각 시대의 전통기술이 집적된 살아있는 표본들이 다수 존재
- 전통 목조건축기술 실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역사도시 교토에서 수행과 구전, 그리고 현장 경험을 통해 도편수로부터 후대 목수로 기술을 전승. 현장에서 선배 목수들이 수행하는 직능을 보고 듣다가 때가 되면 실제 공사 투입
- 일본 전국적으로 전통적인 목조기술 업역이 영세한 편이지만 당사의 경우 대대로 이 분야를 생업으로 삼다보니 현존하는 문화재급 건축 공사나 전통공법을 사용한 주택 건축에 대한 수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

- 전통 목조건축 시장이 일반 목조건축 시장에 비해 침체되어 있어 전통기술을 지닌 도편수가 되기를 꿈꾸는 젊은 목수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사의 경우 전통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희소한 회사이다 보니 매년 입사지원자는 많음
-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 업무의 방식 변화. 예를 들어 설계도서 작성 업무의 경우 CAD 사용과 핸드드로잉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
- 사내에서 별도의 이론 교육은 실시하지 않지만 국보급 문화재 공사에 관여하다보니 건축역사이론계의 거장들과 필연적으로 마주치고 현장업무만으로는 얻기 힘든 그들의 경험과 지식 배우고 이를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누림
- 최근 기술자 수의 감소와 기술 수준의 저하가 눈에 띄는데, 기술자가 존재하든 아니든 신사불각을 비롯한 전통적인 목조건축은 존속하며, 이들을 바람직한 방식으로 수선하여 후대에 남기는 것은 당사, 당사 소속 직원들의 사명
- 당사에서는 고민가 뿐만 아니라 역사적 스키야 건축, 신사·사찰건축 등의 고재를 해체 보존하여 창고에 수장. 유사시 해당 건축물을 언제든 복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
- ‘스키야(数寄屋)³⁾’ 건축에 관한 업무가 많은 당사 특성상,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나카무라 마사오(中村 昌生) 교토섬유공업대학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교토지역에서 스키야건축을 생업으로 하는 여러 공무점이 모여 ‘전통건축연구회(1967)’를 발족해 동업자 간 공부의 장 마련
- 이 모임은 후에 공무점 관계자, 연구자, 설계자,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참여 회원의 속성이 다양하게 확대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교토전통건축기술협회’로 조직을 개조(1978)해 재단법인으로 인가(1980)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
- 교토전통건축기술협회를 통해 야마가타, 후쿠오카, 나고야, 이즈모(현재의 시마네현 동부), 니이가타, 시즈오카 등 여러 지역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다실 건설에 관여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는 전통기술의 발군·전승에 큰 통로가 됨
- 타 지역의 다실건축 등 여러 현장 출장 경험을 통해 당사 기술자, 목수들은 교토 지역의 문화재 건축 공사와 다실 건축 공사에서 연마한 다양한 이론적, 기술적 직능을 타 지역 전문인력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면서 함께 성장
- 교토를 비롯한 관서지역에서 교토전통건축기술협회를 발족해 활동을 전개할 동안, 도쿄를 비롯한 관동지역에서는 우찌다 요시치카(内田 祥哉), 스즈키 카키치(鈴木 嘉吉), 하야카와 마사오(早川 正夫) 교수를 중심으로 ‘일본건축세미나’가 발족되었고 이는 후에 ‘일본건축포럼’으로 계승되었으며, 당사는 발족 당시부터 참여하

3) 스키야(数寄屋)는 다실(茶室)을 가리킨다. 어원인 ‘스키(数寄)’는 일본 고유형식의 시 와카(和歌)나 다도(茶道), 꽃꽂이 등 풍류를 좋아한다는 것에서 유래했다(일본어로 ‘좋아함’이 ‘스키(好き)’). 스키야라고 불리는 다실이 출현한 것은 아즈치모모야마시대로 본래는 정원에 면해 별채로 지어진 작은 다실을 가리켰다. 오늘날 말하는 ‘스키야즈쿠리(数寄屋造り)’는 일본 건축양식의 하나로, 주택 내부에 스키야풍 공간을 도입한 양식을 가리킨다.

여 전통건축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와의 교류, 학습 지속

- 이러한 활동이 일본 각지에서 전통건축을 교육하는 전문학교·고등학교 등의 고등 교육기관을 발족시키는 기운을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함
- ‘일본전통건축보존회’는 일본 전국의 전통건축, 주로 신사불각 건축에 관여하고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발족(2000)되어 NPO법인으로 인가(2004)받았으며, 국가지정 보존기술단체로 인정(2010)받아 활동을 지속
- 일본전통건축보존회의 국가지정 보존기술단체 인정 사실은 전통건축업계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로 전통건축업계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 이 모임에서는 목수를 비롯한 각종 기술자 육성을 위한 연수강습회를 다수 실시 중이며 당사 직원들도 참여율이 높음

• 전통적인 목조건축기술의 계승을 둘러싼 어려움

- ‘한산·아와지대진재(阪神·淡路大震災)⁴⁾’ 이후, 실질적으로 몇 백 년 동안 존속해 온 전통적인 목조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법적인 구속력에 의해 현대의 기술과 재료를 사용해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옴
- 수 백 년을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지어지고 고쳐지고 견뎌온 전통적인 목조건축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더 본질적으로, 정밀한 검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외과적 보강을 의무화하는 표면적인 대응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생각됨
- 후세에 남겨질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과거의 직능인들이 구사한 재능과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이 먼저가 되어야 하며, 과거의 가치 있는 재능과 기술이 이 시대에 현존하는 직능인들에 의해 계승되도록 해야 함
- 내진위장사건⁵⁾ 이후,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어 점점 더 전통적인 목조건축의 설 곳이 좁아지고 목수들은 자연히 정부 지침을 따른(건축기준법에 합치되는) 구법에만 의존하게 됨
- 전통적인 목조주택에 철물과 구조용 합판을 다수 사용하고, 역사가 몇 십 년에 지나지 않는 집성재를 주요 부분에 다수 사용하는 일이 자연스러워 졌으며, 외관은 전통적인 목조주택처럼 보이지만 이음과 맞춤의 구법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간략화 되어 고도의 기술에 대한 수요는 점점 소멸
- 이는 자연히 전통적인 목조건축 축조 시 필요한 도구 사용에 대한 수요의 소멸로

4) 1995년 1월 17일 효고현 남부지진에 의한 대규모 지진재해를 말하며, 이 일을 계기로 효고현, 오사카부, 교토부 등 관서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다.

5) 2005년 11월, 1급건축사 아네하(姉齒)를 비롯한 몇몇 업자들이 구조계산서를 위조해 내진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아파트, 호텔이 건설되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기준법과 건축사법 등이 2007년 6월 개정되었다. 이 사건은 한산·아와지대진재와 더불어 전통적인 목조건축의 내진성능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이어져, 끝·대패가 없는 목수가 전통적인 목조건축을 짓는다는 것조차 상식화 되어 옴

- 목재 사용에 있어서 국산재가 고가이긴 하지만 양질인지의 여부보다 가격을 중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재가 목조건축시장에서 환영받게 됨. 이러한 현상이 결과적으로 일본 임업의 황폐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됨
- 건축기준법 개정에 의해 문화재 이외에는 전통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목조건축이 지어지기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 전통적인 목조건축기술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사람과의 신뢰관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과의 만남과 신뢰관계를 소중히 여겨 전통적인 목조건축기술의 발군·전승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당사의 재원들이 보유한 뛰어난 기량을 펼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

• Q&A

- Q: 일본에서는 야스이모쿠공무점처럼 목수를 사원으로 상시 고용하여 ‘도편수-중견 목수-신입목수’ 조직으로 분화시켜 운영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인가? 한국은 도편수 개인이 직영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A: 당사는 특수한 사례로, 일본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한국과 같이 도편수 개인의 직영방식, 혹은 영세 규모의 공무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후쿠이 무즈미 총무이사]
- Q: 전통건축에 대한 수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상황에서 30여 명의 목수 인력의 고용안정을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는 않은가?
- A: 과거로부터 계속 30여 명의 목수를 고용해 왔던 것은 아니다. 인원이 조금씩 늘어서 현재 상태가 된 것이며, 당사 규모에서는 현재 인원이 거의 한계치라고 생각한다. [사이토 미즈요시 시공이사]
- A: 전통건축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상태에서 목수들의 고용안정을 지속했던 것은 선대로부터 이어져온 경영 방침이었다. 문화재급의 전통건축 관련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일본 국내에서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당사 경영방침을 유지·계승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목수 일이라는 것이 일거리가 많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 일거리가 없을 때도 30여 명의 목수들에게 매달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신뢰관계, 회사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인 목수들의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양질의 성과로 이어지며, 그 성과로 인해 회사는 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게 된다. [후쿠이 무즈미 총무이사]

- Q: 신입 목수들의 경우 평균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
- A: 고교 졸업 후 입사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후 입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다. 중견 목수들이나 그 윗세대에서는 중고교 졸업 후 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평균학력이 높아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목수가 되기 위해 입사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온다. [후쿠이 무츠미 총무이사]
- A: 전통건축에 대한 수요, 젊은 목수인력이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매년 젊은 목수지망생이 몰려온다는 것은 전통건축전문회사로서 야스이모쿠공무점이 능력과 희소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타카다 미츠오 교토대 명예교수]
- Q: 시대에 따라 전통적인 목조건축생산체제, 기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도편수의 역할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 A: 옛날 도편수 역할의 범위는 오늘날보다 훨씬 넓었다. 건축 설계자이자 현장감독 역할을 겸했고, 적산, 재정관리, 부문별 업자 섭외, 영업 등 업체 경영을 위한 모든 일을 총괄했다. 당사에서는 일본이 고도경제성장기에 들어서면서 (1955년 이후) 회사경영이 분업화되기 시작했던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현장감독, 재정관리, 영업 등 각각의 역할이 분화되어 있었다. 현재 당사 목수인력은 목공사와 관련된 시공자의 역할에만 주력하도록 하고 있다. [후쿠이 무츠미 총무이사]
- Q: 일반인이 집을 지으려고 할 경우, 전통적인 목조주택인지 그 외의 일반 주택인지에 따라 일의 절차가 다른가?
- A: 공법에 상관없이 지역의 공무점을 찾아가 발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만, 야스이모쿠공무점의 경우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급공사부터 개인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사가 가능하지만, 영세한 지역 공무점의 대부분은 건축기준법에 합치되고 전통공법보다 절차가 간단하며 비용이 저렴한 재래공법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수요면에서도 그렇고 평범한 서민이 집을 짓기 위해 야스이모쿠공무점에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타카다 미츠오 교토대 명예교수]
- A: 충분한 재력이 있고 전통공법에 의해 구축된 목조주택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당사에 발주 의뢰를 한다. 현재 개인 고객은 모두 대대로 당사와 거래를 하는 건축주들이다. 거래를 지속하면서 구축한 신뢰관계에 의해 개인 주택 관련 업무들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고객이라고는 해도, 몇 대에 걸쳐 당사와 관계를 쌓아온 기존 고객들의 소개로 당사를 신뢰해서 발주하는 분들이다. 세대가 교체되면서 건축주의 가치관과 요구도 바뀌는데, 업자로서 고민스럽기도 하다. 전 세대의 건축주는 필요로 했던 공간이 그 다음세대로 반드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일례로, 부모세대에서는 타타미방을 원했지만 자녀세대에서는 불편하다고 필요로 하지 않아 개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주택

이기 때문에 건축주 의사를 가장 중시하여 대응하지만, 부모 세대에서 많은 정성과 재정을 들여 만든 전통적인 주거공간을 자녀세대에서 원치 않아 그 공간이 도태되거나 일반 목조주택과 다를 것 없는 상태로 개조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 [후쿠이 무즈미 총무이사]

- Q: 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공적 제도, 야스이모쿠공무점 내규 등이 있는가?
- A: 하자보수 문제로 건축주가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주택 준공 후 건축주는 ‘하자담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축주가 업자로부터 주택을 건네받고 10년간은 구조적 결함,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그림17). 보험 운영주체는 민간이고, 보험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그 이외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업자와 건축주와의 계약관계에 의해 2년간 대응한다. [후쿠이 무즈미 총무이사]
- A: 2000년에 주택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주택의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품확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과 관련하여 2007년에는 ‘특정 주택 하자담보 책임 이행 확보에 관한 법률(약칭 ‘주택 하자담보 이행법’)'이 제정되었으며, 하자담보보험이 의무화 되었다. [타카다 미츠오 교토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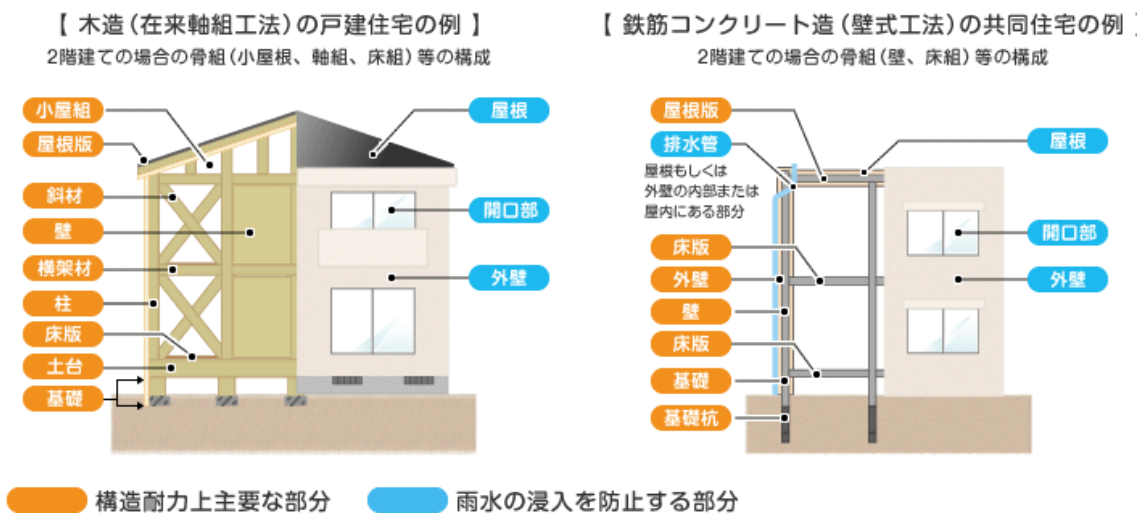


그림 17 주택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예)

좌: 목조 단독주택, 우: RC조 공동주택

(출처: 주택하자보험책임협회 <http://kashihoken.or.jp/kashihoken/>)

o ‘주택 하자담보보험’ 제도

- 국토교통성대신이 지정한 보험 법인이 제공하는 ‘신축주택 보험’을 이용한 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업자로부터 주택을 건네받고 10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한 사업자에게 보험금이 지불되는 제도

(출처: 주택하자담보책임보험협회 HP <http://kashihoken.or.jp/kashihoken/> (검색일: 2018.4.26))

○ ‘주택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1999년 법률제81호))

- 이 법률은 주택의 성능에 관한 표시기준 및 이것에 근거한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에 관한 분쟁 처리 체제를 정비함과 더불어, 신축주택의 청구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특별히 정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확보 촉진, 주택 구입자 등의 이익 보호 및 주택 관련 분쟁의 신속 정확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번역)
- 이 법률에서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가옥 또는 가옥의 일부(비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가옥의 일부와 공용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를 말한다. 이 법률에서 ‘신축주택’이란, 새로이 건설된 주택으로 아직 주거용으로 이용한 적이 없는 것(건설공사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것은 제외)을 말한다. (동법 ‘제1장 총칙 제2조’ 번역)

○ ‘특정 주택 하자담보 책임 이행 확보에 관한 법률’

(特定住宅瑕疵担保責任の履行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2007년 법률제66호))

- 이 법률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반인 주택이 지녀야 할 안전성과 품질 또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하자 발생 방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이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건설업자에 의한 주택건설하자담보보증금의 공탁, 택지 건물 거래업자에 의한 주택매매하자담보보증금의 공탁, 주택하자담보책임보험법인의 지정 및 주택하자담보책임계약과 관련된 신축주택에 관한 분쟁처리체제 등에 대해서 정함으로써,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공사 발주자 및 신축주택 구매자의 이익 보호 및 원활한 주택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번역)

(출처: 일본 법무성 HP <http://www.moj.go.jp/> (검색일: 2018.4.26))



그림 18 기념사진(2018.4.2, 주식회사 야스이모쿠 공무점 본사 접견실)

첫줄 왼쪽부터 사이토 미츠요시 시공이사 · 후쿠이 무츠미 총무이사(야스이모쿠공무점)
 둘째 줄 왼쪽부터 타카다 미츠오 교수, 신치후 연구위원 · 김해리 부연구위원 · 박진기 부연구위원(au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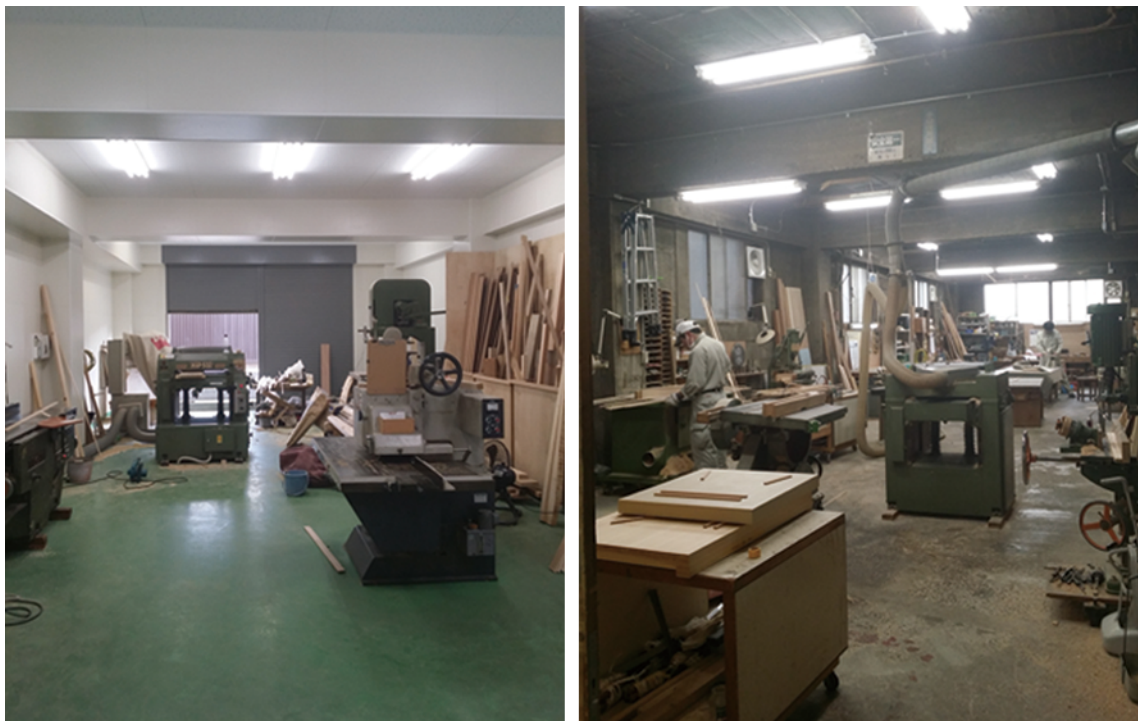


그림 19 야스이모쿠공무점 본사 내 작업실(목공실)

사내 작업실은 주로 창호 제작 · 수리 용도로 사용되며 기타 작업 및 자재보관은 별도 장소 사용 중

2. 전통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사

(1) 교토건축전문학교·교토부건축공업협동조합 관계자 면담

■ 개요

- 일시: 2018년 4월 2일(월) 09:00~12:00
- 장소: 교토건축전문학교 요시아마찌 마찌야 교사(よしやまち町家校舎)
- 면담 대상
 - 사노 하루히토(佐野 春仁): 교토건축전문학교 교장
 - 키무라 타다노리(木村 忠紀): 교토부건축공업협동조합 대표이사(키무라공무점 대표, 1급 건축사, 도편수, 교토부 우수기능자)

■ 면담 내용

• 교토건축전문학교 개요

- 설립 배경
건축사법 제정(1950)에 따른 건축기술 교육기관의 필요성, 해당분야 근로자 수요
- 학교 연혁
1951 교토부건축공업협동조합 산하 교육기관 「교토건축공업학교」 개교(야간제)
1964 교토부지사 승인을 얻어 학교법인 교토건축학원 경영(전일제 병설)
1972 전일제부문에 대해 1급건축사시험 수험자격 인정, 이듬해 전일제부문에 대해 2급건축사시험 수험자격(졸업 후 실무경험 불요) 인정
1974 「교토건축전문학교」로 교명 변경
1976 제2부건축과(야간) 졸업생에 대해 2급건축사시험 수험자격(졸업 후 실무경험 1년) 인정, 학교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수(專修)학교로 인가, 공업고등과정과 공업전문과정(건축과(주간), 건축과2부(야간))을 설치
1989 건축과 및 건축과2부 졸업생에 대해 1급 및 2급건축시공관리사시험 수험자격 인정
1993 건축과2부(야간) 졸업생(1996년 이후)에 대해 2급건축사 및 목조건축사시험 수험자격요건 승격(졸업 후 실무경험 불요) 인정
1999 마찌야를 구입해 '요시아마찌 마찌야교사'로 개수 착수, 이듬해 준공
2009 건축과2부(2009년 이후 입학생)에 대해 1급건축사시험 수험자격 인정

• 운영 개요

- 운영 방침

건축과(주간)·건축과2부(야간) 2년제 교육과정 운영

소수정예 건축교육 지향, 개교 이래 배출인력 약 5천 여 명

전통문화와 목조건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건축전문인력 양성 목표

- 입학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운영 학과 및 운영 기간, 인원 등

건축과: 2년제, 정원 60명, 총인원 120명, 야간

건축과2부: 2년제, 정원 60명, 총인원 120명, 야간

개강기간: 4월 1일 개강, 3월 31일 종강(전기 4/1~9/30, 후기 10/1~3/31)

수업시간: 주간 9:20~17:00, 야간 18:20~21:30

교직원: 교장, 교원(4명 이상), 강사(20명 이상), 사무직원(2명 이상)

- 수업료

건축과: 입학선고료 2만엔, 입학금 15만엔, 연간수업료 80만엔, 연간시설사용료 16만엔, 연간교재비 4만엔

건축과2부: 입학선고료 1.5만엔, 입학금 10만엔, 연간수업료 44만엔, 연간시설사용료 10만엔, 연간교재비 4만엔

- 부대 교육사업(별과)

전통건축연구과: 수업기간 6개월, 수업 시수 20시간, 총 정원 15명, 야간 운영
별과 수업료, 교육과정을 비롯한 기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름

- 장학금·교육 론(2017년 2월 현재)

◦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제1종 장학금(무이자), 자택 3만엔 또는 5.3만엔, 자택 외 3만엔 또는 6만엔/ 제2종 장학금(이자), 3만엔~12만엔

◦ 국가 교육 론: 용자액 1인 350만엔 이내, 학교납부금, 하숙비, 통학교통비 등으로 지출 가능,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출자

◦ 교육훈련급부제도: 자격 요건은 건축과2부 1년차 학생일 것, 장학금 수급 개시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3년 이상(최초 수혜자의 경우 1년 이상)인 자일 것

- 학생 재해·상해 보험: 학기 중, 학교 행사 중, 학교가 인정하는 과외활동 중 및 정규 경로를 거친 통학 중 등의 상해사고·배상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가입(재단법인 전수학교 진흥회)

• 교육과정 개요

- 수업 이수 조건

건축과: 36과목(필수 29, 선택 7), 필수 1710시간, 선택 240시간

건축과2부: 29과목(필수 25, 선택 4), 필수 1716시간, 선택 117시간

- 운영 교과목

계획학, 환경공학, 재료학, 건축사(일본·서양건축사), 시공적산, 설비공학, 법규, 의장, 제도 및 설계 실습, 전통건축구법·설계 실습, CAD,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 구조, 건축산업, 목공기초, 인테리어기초, 리노베이션·디자인 실습 운영 등

- 건축과(주간) 교육과정 개요

○ 1년차

: 건축 계획·법규·구조·시공 등 건축사를 비롯한 관련 자격시험 수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과목들을 이수. 사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도서 작성 방법, 설계도서 읽기 방법, CAD 연습 등에 중점을 둔 교육 실시. 본교 특색인 전통건축 견학, 목공 실습, 의장 실습 등을 통해 전문을 넓힘

○ 2년차

: ‘설계/ 리노베이션·디자인/ 목공’의 3코스 운영

‘설계’ 코스: 건축사, 건축시공관리기사 등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깊게 함. 설계도서, 계획, 법규, 구조, 시공 등에 대해 학습하고 이들 지식이 최종적으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되도록 훈련시킴. 설계 의도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훈련 병행

‘리노베이션·디자인’ 코스: 낡은 건축물을 개수해 새롭게 변모시키는 리노베이션에 중점을 둔 교육 실시. 자원 절약, 에너지 소비량 절감 등의 관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리노베이션을 주로 ‘교마찌야’를 대상으로 실시

‘목공’ 코스: 끌과 대패를 이용해 목재를 가공하거나 시공도면을 그리거나 목조 건축 프로세스의 학습 등에 중점을 둔 교육 실시. 숙련된 도편수나 기술자의 지도 아래 현장 실습 등을 통해 목공 기능과 현장업무의 흐름을 파악. 목공 기능에 보태어 설계도서, 계획, 법규, 구조, 시공 등 건축지식 전반을 심화함으로써 장래에 ‘건축사’까지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킴

○ 세미나

: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관심분야,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 건축과(주간)와 건축과2부(야간) 학생 간의 교류 가능. 건축과 학생은 2년 간 3단위 이상의 세미나 과정을 이수해야 함. 학생 선호도에 따라 단위 증가 가능. 세

미나 분야는 ‘마찌야/ 인테리어/ 일식 공간 디자인/ 주거론/ 건축디자인/ 지역거주공간/ 규구술(規矩術)⁶⁾/ 목수/ 의자/ 2급 건축시공관리기술 검정시험 수험대책 강좌/ 2급 건축사시험 입문 강좌’ 등으로 구성

• 졸업생 자격 관리

- 공업전문과정 건축과 또는 공업전문과정 건축과2부를 졸업한 자에게는 ‘전문사’ 칭호 부여(공업전문과정, 1995년부터 문부성 고시(告示)에 의해 시행)
- 수험자격의 부여
 - 1급 건축사: 졸업 후 건축실무경험 4년 이상
 - 2급 건축사·목조건축사: 졸업 후 건축실무경험 불요
 - 1급 건축시공관리기사: 졸업 후 건축실무경험 5년 이상(기간 중 감독 수종의 실무경험 1년 이상)
 - 2급 건축시공관리기사: 졸업 후 건축실무경험 2년 이상(학과시험에 한해 재학 중 응시 가능)
 - 건축대공기능사(후생노동성 소관): 2급 건축대공기능사: 3급 합격 후/ 3급 건축대공기능사: 재학 중 응시 가능

• 교토부건축공업협동조합 개요

- 1902년 창설(교토부건축도급업조합→교토부건축공업협동조합(1947 개조))
- 일본 전통건축기술의 집적지인 교토를 기반으로 전통구법의 계승과 응용을 통해 목조건축 생산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 건축기술·기능직을 생업으로 하는 전문인력·업체(공무점)를 대상으로 경영, 관련 법률·제도 개정, 복리후생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전통구법의 내진성능평가법, 내진구조 및 내진보강법 개발 협력(연구협력) 「교마찌야 등 전통건축의 구조특성 진동실험에 의한 해석 연구」(교토대)
- 건축기준법상 부적격인 교마찌야의 흙벽을 방화성능기준에 적합화 시키기 위한 구법 개발 협력(와세다대) 『토장벽과 처마의 방화 매뉴얼』 발간
-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 작업 주임자 강습(현장에 필요한 안전자격 교육): 후생노동성 등록 교습기관으로서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해 작업현장에 배치해야만 하는 작업 주임 자격 강습 ‘거푸집 지보공/ 목조건축물 조립/ 비계조립/ 목재가공용 기계’ 부문 실시
 - 기능검정강습: 건축대공기능사 1~2급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강습회 실시

6) 곱자를 이용해 서까래 등 구조부의 실제 형태를 입체 기하학적으로 구상하여 직접 목재에 작도하는 방법

• Q&A

- Q: 2년 간 1700여 시간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낙오자는 없는가?
- A: 있다. 도중에 퇴학하거나 유년하는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입학생의 80% 정도의 학생이 졸업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타 전문학교들에 비해 시수가 뽕뽕한 편이다. 2급건축사 수험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17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실제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학기당 약 500시간 씩 총 2000시간 가까이 이수한다. 이렇게 강도 높게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학생의 최종 목표가 목수라 하더라도 건축사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이다. 일본에서는 목수로 살더라도 업체를 운영하려면 건축사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사노 하루히토 교장]
- Q: 목수가 개인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 A: 목수가 자신의 업체를 가지고 500만엔(5,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공관리기사 자격만 보유하더라도 업을 할 수는 있으나 공사비용의 제약을 생각하면 수행 가능한 업무가 지극히 적다. 1급건축사 자격이 시공관리기사의 업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목수가 자영업을 하기 위해 1급건축사 자격이 필수라고 볼 수 있다. [키무라 타다노리 대표이사]
- Q: 기관 운영, 학생 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 A: 기관 운영에 대해 이렇다 할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는 없다. 학자금 대출·장학 제도가 있어 원하는 학생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제도는 있다. 교토부 생애학습과에서 교육자재 비의 일부(연간 200만엔(2,000만원) 정도)를 학교 측에 지원해 준다. [사노 하루히토 교장]
- Q: 수업료는 모두 학생 자비 부담인가? 다른 건축전문학교들도 이정도 금액인가?
- A: 자비부담이다. 수업료는 평균 정도 수준이다. 건축전문학교보다 교육비가 저렴한 직업훈련시설(후생노동성 소관)이 있지만 그곳들을 졸업한다고 해서 건축사시험 수험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장 실무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후생노동성 소관의 건축대공기능사 자격만 있어도 되지만, 2급건축사 수험 자격은 이론수업에 대한 이수과정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사노 하루히토 교장]
- A: 실무경력 10년 이상이 되면 2급 건축사시험 수험자격이 주어지지만, 시험 내용의 성격상 일련의 이론교육을 받지 않고서 실무경력 만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 [키무라 타다노리 대표이사]
- Q: 입학생의 속성과 학업성취도는?
- A: 주간반(건축과)의 경우 거의 80%가 고등학교 졸업생이고 나머지 20%는 일반

인이다. 야간반(건축과2부)의 경우 90% 이상이 대졸자 혹은 대학교 재학생, 일반인이다. 건축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건축 관련 자격시험 수험 요건을 갖추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많이 온다.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특히 학생들을 개수 혹은 신축에 참여시키는 현장 실습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솜씨만으로 하나의 목조주택을 완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키무라 타다노리 대표이사(도편수)께서 주요 공정 시 직접 현장에 나와 지도하신다. [사노 하루히토 교장]

- Q: 교육과정이나 졸업생 자격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보아, 귀교에서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도 각종 자격시험 수험자격요건을 갖추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년제 대학 건축학과 졸업 시 메리트는 무엇인가?

- A: 4년제 대학 건축학과 졸업생의 경우, 실무경력 2년만 있으면 1급 건축사시험 수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다(전문학교 졸업생의 경우, 실무경력 4년 필요). 1급 건축사는 목조를 비롯한 중소규모 건축물뿐만 아니라 대형 철근콘크리트 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노 하루히토 교장]

- A: 4년제 대학 건축학과의 경우, 1급 건축사시험 수험 자격을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목조건축에 대한 집중 학습이 어렵다. 1950년 건축기준법 제정 이후 건설시장에서 목조건축보다 비목조건축이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대학 교육도 자연히 그에 맞춰 이루어져 왔다. 4년제 대학 건축학과 교육에서 목조건축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타카다 미츠오 교토대 명예교수]

- Q: 전통 목조건축에 관한 교육은 전체 교육과정 중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 A: 총 2년의 교육과정에 걸쳐서 목조건축에 대한 교육은 지속된다. 기초 소양에 관한 교육은 1년차 때 이루어지며, 2년차 때는 설계/ 목공/ 리노베이션·디자인 총 세 개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심화학습을 시킨다. 단지 2급 건축사시험 수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수를 업으로 삼아 사는 것이 최종 목표인 학생들은 대부분 목공 코스를 선택한다. [사노 하루히토 교장]

- Q: 학생 정원은 매년 달성되는가?

- A: 학년 당 정원은 60명인데 만원이었던 적은 없다. 45명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매년 45명 안팎의 학생들이 입학한다. [사노 하루히토 교장]

- Q: 전통 목조주택 건축 시 전통공법과 재래공법이 있다. 1950년 건축기준법 제정 이래 사실상 재래공법에 의해 전통 목조주택을 짓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귀교 교육과정을 통해 전통공법의 기초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상황인가?

- A: 2급 건축사시험 수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통공법에 대한 지식도 반드시 필요하다. 본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함으로써 전통공법에 관한 소정의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노 하루히토 교장]

전통 목조건축 전문인력 관련 자격 제도

○ 건축사 / 국토교통성 소관(1950 시행)

- 1급건축사: 국토교통대신의 면허를 받아 1급건축사 명칭을 사용해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 복잡고도한 기술을 요하는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나 2급건축사, 목조건축사 지도에 필요한 지식, 기술, 직업이론 등에 관한 소양 필요
- 2급건축사: 도보부현 지사의 면허를 받아 2급건축사 명칭을 사용해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 개인주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 기술, 직업이론 등에 관한 소양 필요

○ 목조건축사 / 국토교통성 소관(1984 시행)

- 도보부현 지사의 면허를 받아 2급건축사 명칭을 사용해 목조건축물에 관해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
- 도편수를 위한 자격제도로, 건축사 소지자 본인이 확인신청을 하고 직접 목조건축물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 대상이 됨
- 자격 취득 후에는 건설회사나 건축사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독립 사무소 개업도 가능
- 연면적 300㎡ 이내, 2층 이하의 목조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 가능
- 요구되는 역할: 목조건축물의 장점 전승, 시공품질 확보 및 향상 도모

○ 건축시공관리기사/ 국토교통성 소관

- 국가자격인 시공관리기사의 일종으로 1급과 2급으로 분류
- 1급건축시공관리기사는 일반 건설업, 특정 건설업 허가 기준의 하나인 영업소마다 두는 전임 기술자, 건설공사 현장에 두는 주임 기술자 및 관리 기술자의 적격자이며, 대규모 공사(초고층건축, 대규모도시시설 등)를 다룸. 공공성이 있는 7,000만엔 이상 규모의 공사, 그 외의 3,500만엔 이상 규모의 공사 시 본 자격을 보유한 주임 기술자, 감리 기술자를 전임으로 두어야 함

○ 건축대공기능사(建築大工技能士) / 후생노동청 소관

- 국가자격인 기능검정 제도의 일종으로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협회(문제 작성 등은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가 실시하는 건축대공에 관한 학과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
- 수험자격: 1급 실무경험 7년 이상, 2급 실무경험 2년 이상, 3급 실무경험 6개월 이상

(출처: 위키피디아 재팬 ja.wikipedia.org, 일본 국토교통성 HP www.mlit.go.jp/
일본 건축기술교육보급센터 HP www.jaeic.or.jp (검색일: 2018.5.2))



그림 20 교토건축전문학교 · 교토부건축공업협동조합 관계자 면담(2018.4.2)



마찌야교사 외관(기존 마찌야 개수)



마찌야교사 입구



개수 내용 설명을 듣는 모습



개수 과정 기록 자료 전시

교토건축전문학교 요시아마찌 마찌야교사(京都建築専門学校 よしやまち 町家校舎) 내외부 모습



목공 실습



벽체 성능 실험

교토건축전문학교 뒷편에 마련되어 있는 실습장



교토부건축공업협동조합(교토건축전문학교 맞은편)

그림 21 교토건축전문학교 · 교토부건축공업협동조합 내외부 모습

(2) 카나자와직인대학교 관계자 면담

■ 개요

- 일시: 2018년 4월 5일(목) 09:00~12:00
- 장소: 카나자와직인대학교(金沢職人大学校) 교사사무국 접견실
- 면담 대상
 - 나카타 마사하루(中田 政晴): 카나자와직인대학교 사무장

■ 면담 내용

- 카나자와(金沢)의 도시적 특성과 카나자와직인대학교 설립 배경
 - 현재는 이시카와현(石川県)의 현청소재지로 인구 46만여 명의 중규모 도시
 - 약 430여 년 전 성시(城市)⁷⁾로써 건설된 도시. 센고쿠 시대~아즈치모모야마 시대에 활동했던 유력 무사 마에다 토시이에(前田 利家)가 영주로 있던 도시
 - 교토가 공가(公家)의 도시였다면 카나자와는 무가(武家)의 도시라는 특성을 지님
 - 제2차 세계대전 때 공습으로 일본 각지가 황폐화 되었으며, 다행히도 교토, 나라, 카나자와 등 역사적 경관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의 공습 순서가 뒤쪽이었던 덕분에 종전 후에도 예전의 도시조직, 역사 경관을 어느 정도 유지
 - 이러한 도시의 역사적 자원을 시정 운영과 연계해 어떻게 유지·계승해 나갈 것인가,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에 입각한 논의들이 계속됨
 - 전후부터 고도경제성장기까지는 주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책 수립, 사업 추진에 주력했으며, 약 30여 년 전부터는 카나자와의 ‘문화’를 키워드로 한 시책 수립, 사업 추진에 주력
 - 당시 시장은 문화 육성에 관심이 많았으며, 역사 문화의 전승에 대한 사명감이 강했음
 - 문화를 키워드로 한 시책 수립 과정에서 당시 시장이 역사적 건조물 수리현장에 방문. 이 때 수리에 투입된 대부분의 인력이 카나자와시, 이시카와현 출신이 아니라 타지에서 일시적으로 방문한 인력이라는 것을 알고 카나자와의 역사 문화를 근본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지역인재 육성’, ‘전통기술 전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 이러한 발상으로부터 카나자와직인대학교 설립

7) 일본어로는 ‘조우카마찌(城下町)’라고 불린다. 제후의 거성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도읍을 의미한다.

• 카나자와직인대학교 개요와 특성

- 1996년 8월 사단법인 카나자와직인대학교(金沢職人大学校) 설립, 10월 개교
- 설립 취지: 카나자와의 전통산업(건축·공예 등)기술의 전승과 인재 육성,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 조사 및 정보 홍보, 장인의 기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제고, 카나자와의 전통산업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 증진
- 중앙 정부나 이시카와현(縣)으로부터의 지원은 일체 없으며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적으로 카나자와시 재정에 의해 학교 운영
- 민간에서 전통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전국적으로 존재하며 그 기관들 중에는 직업훈련 시설로서 국고 지원을 받는 사례도 많으나, 본 대학과 같이 시의 공적자원을 투입해 설립 운영하는 사례는 유일무이
- 전통 목조건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여타 교육기관에서는 비전문가를 전문가로 육성하는 데 반해, 본교에서는 기존의 전문가를 더욱 고도의 전문가로 육성해 후세에 그 기능을 전승하기 위한 인력양성체계 구축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독자성을 지님
- 이러한 독자성은 역사 문화적 건축자산이 다수 남아 있고 그것들에 대한 보존·수리의 수요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토, 나라 등지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움. 왜냐하면 전문인력의 기능에 대한 수요가 자연발생적으로 상시 존재하기 때문에 기능 전승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
- 반면, 카나자와의 경우 전통 목조건축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교토나 나라 등지의 지역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기능의 학습과 기능의 전승을 하기 위한 환경이 열악한 상황.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교를 설립

• 운영 개요

- 운영 방침: 카나자와시의 ‘문화정책’에 기반해 ‘건축’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능 전승의 장이 되는 것에 집중
 - 전통산업 각 분야의 중견 기술인력을 고도의 전문기술을 습득한 장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수와 정보교환의 장이 될 것
 - 카나자와의 전통산업기술에 대한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장인들을 통해 숙련된 미의식과 기능을 차세대에 계승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
 - 문화재를 비롯한 전통적 공간환경의 수복·보존에 기여하고, 뛰어난 기술력이 결집된 새로운 전통산업의 결과물을 창출하며, 그 성과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
 - 다분야에서 모인 고도의 장인들에게 가치 교류의 장이 될 것

- 운영 학과 및 운영 기간, 인원 등
 - 본과: 3년제, 총 9개 학과, 총인원 50명
 석공과 5명/ 기와과 5명/ 미장과 5명/ 조원과 5명/ 목수와 10명/ 타타미과 5명/
 창호과 5명/ 판금과 5명/ 표구과 5명
 - 수복전공과: 3년제, 총인원 50명
 수복전공과 입학생은 원칙적으로 본과 수료생 또는 본과 강사여야 하며, 청강생
 을 둘 수 있음
 - 입학생 모집은 연도별이 아닌 기수제로 3년 간격으로 실시
- 재정 운용 방식
 - 출자: 카나자와시
 - 연간 출자액: 약 7000만엔(7억원)
 - 예산 사용처: 시설 운영 관리비, 강사료, 사무국 운영진 급여, 재료비, 기타 일
 반시민 대상 행사비 등
 - 매년 강사진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세워 카나자와시에 제출,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
 - 심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 출자 이후 카나자와시의 개입은 없으며, 강사진
 과 학교 사무국 운영진의 재량에 따라 재정 운용. 또한, 사무국 운영진은 교육
 에 관한 제반 사항이 판단은 강사진의 판단을 따르며, 강사진과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사무국 운영진은 카나자와시 직원이 고용되며, 현재 배속된 2명의 사무국 운영
 진은 카나자와시 직원이었다가 정년 후 재취업한 상태로 카나자와 직인대학 설
 립 당시부터의 시정 비전을 이해하고 있는 재원들로 구성
- 입학자격
 - 본과: 기본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자로 만 30-50세 이하여야 하고, 3년간의
 교육연수를 받을 의지가 있어야 하며, 각 업종 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함
 각 업종 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 실무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입학생들의 실무 경력은 10년 이상으로 중견 직능인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수복전공과: 본과 수료생 또는 본과 강사로 계속해서 자주적으로 연수할 의욕이
 있는 자
 - 수복전공과 청강생: 건축·설계사 및 카나자와시 문화재 관계 직원으로 계속적으
 로 연수를 희망하는 자
- 수업료: 무료(단, 체험학습강좌 비용 일부는 개인 부담). 학교 운영비용 및 교육

비는 전액 시 출자에 의해 지원

- 강사: 국가, 현, 시의 학식경험자 및 기술 보유자

• 교육과정 개요

- '본과'와 '수복전공과'의 2개 코스를 각각 3년제로 운영(그림22)
- 본과에서는 실무 강사진에 의해 수작업 기능 교육 실시
- 학생들은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리기 때문에 수업은 본과, 수복건축과 모두 야간수업으로 진행
- 수복전공과에서는 대학 교수, 문화청 관계자, 건축실무자, 도편수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에 의해 역사적 건조물을 둘러싼 역사와 문화, 건축기술 등 지식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수리기술에 관한 실습 교육 실시
- 본과
3년간의 교육과정이 작년 10월 8기째(24년)를 맞이했으며, 2020년 9월 수료 예정(매 기수의 개강 시기는 10월, 종강 시기는 9월)
작년 9월 수료한 7기생은 총 43명, 8기 입학생은 50명. 2020년까지 약 400명 정도의 교육생 배출 예정
- 수복전공과
3년간의 교육과정이 작년 10월 7기째(21년)를 맞이했으며, 2020년 9월 수료 예정(매 기수의 개강 시기는 10월, 종강 시기는 9월)
작년 9월 수료한 6기생은 총 49명, 7기 입학생은 50명. 2020년까지 약 350명 정도의 교육생 배출 예정
- 본과 세부 전공: 9개 과 운영
'석공과/ 기와과/ 미장과/ 조원과/ 목수과/ 타타미과/ 창호과/ 판금과/ 표구과'
9개의 학과는 실제로 전통건축을 지을 때 투입되는 9개 업종에 따라 구성

• 시설 개요

- 교재창고: 목조, 일부 2층, 기와지붕, 연면적 약 59.6m² / 실습동: 철골조, 2층, 일부 1층, 기와지붕 및 컬러 갈바륨강판 지붕, 연면적 약 1458m² / 제2실습동: 철골조, 1층, 컬러 갈바륨강판 지붕, 연면적 약 753.6m² (그림23)

• 졸업생 자격 관리

- 국가자격에 대한 인정사항은 없으며, 카나자와 시에서 발행한 인정증을 본과 및 수복전공과 각 졸업생에게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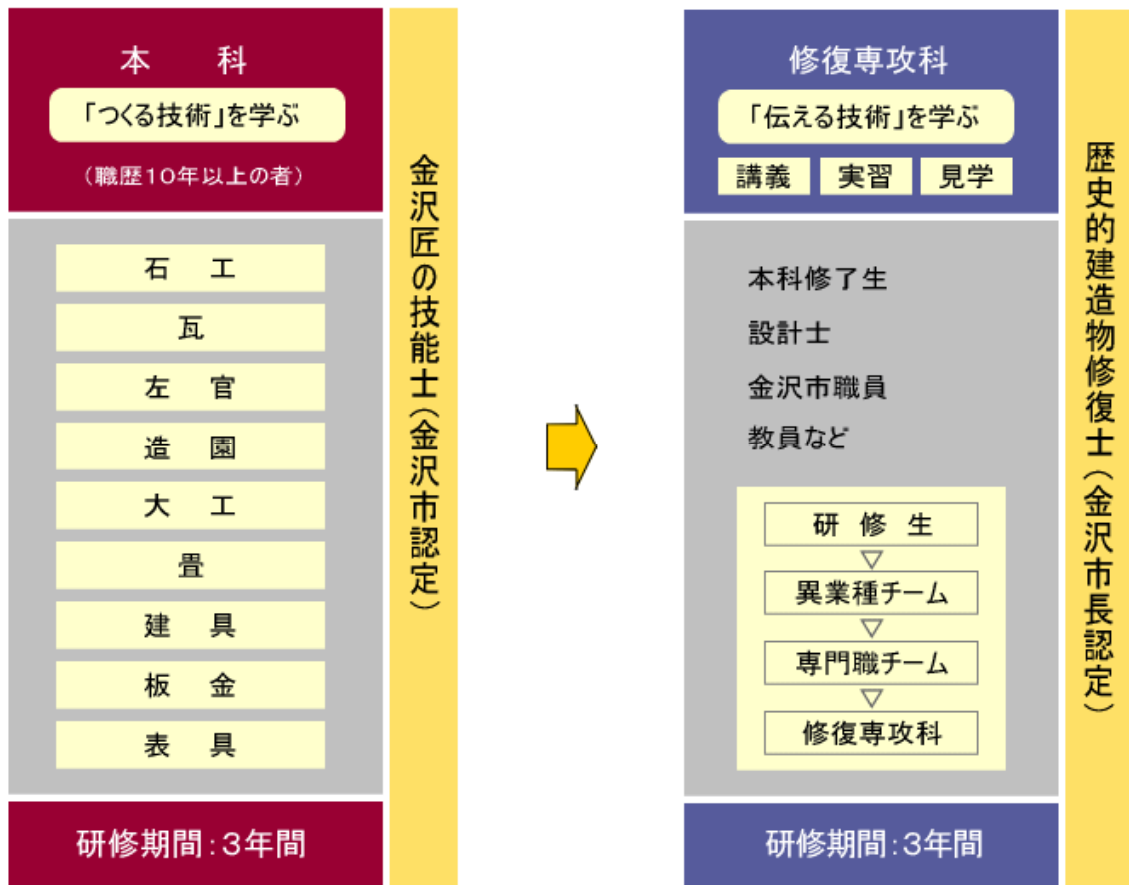


그림 22 카나자와직인대학교 교육과정(왼쪽: 본과, 오른쪽: 수복전공과) 소개

(출처: 카나자와직인대학교 HP <http://www.k-syokudai.jp/gaiyo/gaka.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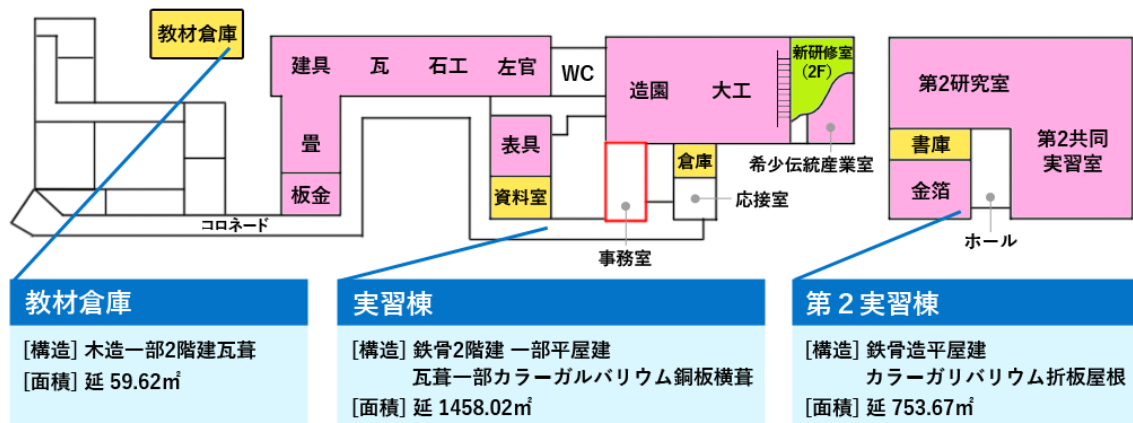


그림 23 카나자와직인대학교 시설 안내도

(출처: 카나자와직인대학교 HP <http://www.k-syokudai.jp/gaiyo/syokudai.html>)

- 본과: '카나자와장인기능사(金沢匠の技能士)' 인정증(그림24)
- 카나자와장인기능사 인정 훈장의 메리트: 카나자와에서 전통건축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급공사에 해당 훈장을 보유한 직능인을 투입하게끔 하여 졸업생들이 지역의 전통기능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수복전공과: '역사적건조물 수복사(歴史的建造物修復士)' 인정증(그림25)
- 역사적건조물수복사 인정증의 메리트: 최근 일본에서는 마찌야(전통 목조주택) 재생 활용 붐. 카나자와에 현존하는 마찌야를 본래의 모습으로 수복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인정증을 보유한 직능인들에게는 사업 홍보효과가 있음



그림 24 카나자와 직인대학교 본과 졸업생이 받는 인정증
(출처: 카나자와직인대학교 HP <http://www.k-syokudai.jp/honka/sikaku.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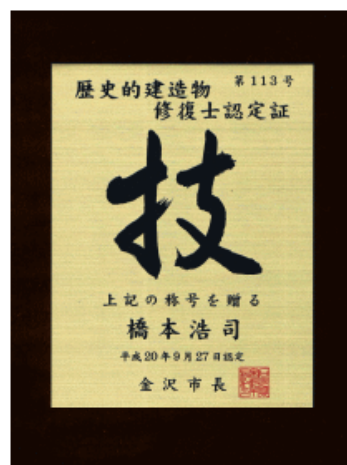


그림 25 카나자와 직인대학교 수복전공과 졸업생이 받는 인정증
(출처: 카나자와직인대학교 HP <http://www.k-syokudai.jp/senkoka/sikaku.html>)

• Q&A

- Q: 교육과정은 3년제로 긴 편이다.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바빠서 도중에 그만두는 학생은 없는가?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 A: 도중하차 하는 인원은 없었다. 입학생 대부분이 실제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중견 직능인이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을 느껴 낙오하는 경우는 없다. 개인 변심에 의해 도중하차 한 경우도 없었다. 이들을 교육시키는 대상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가르쳤던, 혹은 현재까지도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역할을 하는 선배 직능인들이다. 선배들의 기능을 배우고 현장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며, 후배들에게 전승하기 위해 입학하는 것이다. 도중하차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이 종사하던 현업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나카다 마사하루 사무장]
- Q: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중견 직능인들에게 또다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실제로 초보자를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타 기관과 차별화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A: 본교에서는 ‘전통기술의 전승’을 교육의 최종 목표로 한다. 그래야 전통건축문화도 육성해 나갈 수 있다. 현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실무자라고 해서 모두가 전통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 도구와 간편한 조립방식에 의해 축조 가능한 일반 목조건축에 비해, 수작업에 의해 축조하는 전통 목조건축은 훨씬 더 고도화된 직능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고도화된 기능들이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전승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카나자와처럼 전통적인 건축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참여할 공사현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미 현장에서 자신이 구사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배 직능인들을 통해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최종 목표이다.
교육내용의 차별성이 있다면 건축기준법 제정 이후의 재래공법 등 일반화된 현대의 기술이 아닌, ‘전통기술’을 학습시킨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창호 제작을 위해 장지문을 여러 겹 바르는데 그 때 사용하는 풀도 옛날 방식으로 직접 제작해서 쓴다. 현대에 지어지는 전통건축의 장지문도 사실은 기성품 풀을 쓰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전통기술이 사용되는지의 여부보다는 전통기술을 제대로 학습해서 전승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나카다 마사하루 사무장]
- Q: 입학 대상자 요건에 거주 지역 제한은 없는가?
- A: 없다. 카나자와시나 이시카와현 이외의 지역 인력이 지원해도 주어진 자격 요건만 갖추면 차별 없이 받아 준다. [나카다 마사하루 사무장]
- Q: 카나자와시 재정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타지 인력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시의 제제는 없는가?

- A: 없다. 시에서는 재정을 비롯해 교육을 위한 교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운영 방식은 전적으로 학교 재량에 맡긴다. [나카다 마사하루 사무장]

- Q: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절차 등이 있는가?

- A: 없다. 학교 운영진(사무국)은 시에서 받은 예산으로 강사료 지급, 시설 운영관리 등의 사무 처리를 하고 교육내용,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강사진 재량에 맡긴다. 재료비 사용에 대해 강사진 간의 협의가 되고 연간 예산의 반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운영자 측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나카다 마사하루 사무장]

- Q: 재수강이 가능한가?

- A: 재수강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3년에 걸쳐 전통건축기술의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학습하기 때문에 재수강을 요청한 사례도 아직은 없었다. 다만 표구과의 경우 재수강 학생이 있었다. 다른 과에 비해 주택 시장에서 기술 수요가 특히 적은 분야여서 20년 이상 교육을 하다보니 카나자와시에 거주하는 표구 장인은 대부분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실 작년에 새로 입학한 8기생 중 표구과 학생은 모두 타지역 학생이다. 시 예산으로 전원 타지역 학생인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기능 전승의 차원에서 교육을 지원한다. 카나자와의 장인에게 타지역의 장인이 기능을 전수받으러 오는 것 또한 시의 자랑이고, 지역별 장인의 솜씨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

- Q: 운영진(사무국 직원) 고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시에서 파견하는가?

- A: 카나자와직인대학교는 시에서 설립했지만 시립이 아니라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는다. 다만 시와의 관계, 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 그간 사무국 직원들은 모두 시청 은퇴자들이다.

- Q: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적은 없는가?

- A: 없었다. 예산을 시 재정에서 지원받는다 해서 교육 및 운영 등의 활동에 제제를 받지는 않는다. 본 학교는 문화 육성, 전통기능 전승이라는 시정 계획 하에 설립됐다.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에서는 재정을 지원하고 법인에서는 학교를 운영한다. 이상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Q: 시장이 바뀌어도 문화육성을 위한 시정 비전에는 변함이 없었나?

- A: 비전을 제시한 시장이 장기간 연임을 해서 시정 전개가 원활했다. 시 직원과 카나자와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되면서, 새 시장 부임 이후에도 이전의 시정비전이 안정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



그림 26 카나자와직인대학교 관계자 면담(2018.4.5)



그림 27 카나자와직인대학교 교사 전경



그림 28 카나자와직인대학교 실습동 내부(1)



그림 29 카나자와직인대학교 실습동 내부(2)

3. 전통 목조주택 진흥 관련 조사

(1) 교마찌야재생연구회·교마찌야작사조 관계자 면담

■ 개요

- 일시: 2018년 4월 3일(화) 10:00~13:30
- 장소: 교마찌야재생연구회 사무국(카만자쵸 초이에(釜座町町家))
(〒604-8214 京都市中京区新町通錦小路上る 百足屋町384)
- 면담 대상
 - 코지마 후사에(小島 富佐江): NPO법인 교마찌야재생연구회 이사장
 - 키노시타 류이치(木下 龍一): 교마찌야작사조 대표이사(1급건축사사무소 아틀리에 RYO 대표, 1급건축사)

■ 면담 내용

• 조직 개요

- 교마찌야재생연구회(京町家再生研究会)는 1992년 발족되었으며, 교마찌야작사조(京町家作事組)는 1999년 발족
- 교마찌야재생연구회 발족 초기에는 건축가, 대학 교수, 공무원 관계자 등 약 30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었다가 교마찌야 거주자를 비롯해 교마찌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으로까지 구성원의 계층 확대
- 구성원 계층과 활동범위가 다양화되고 확대 되면서 역할분담의 필요성 제기
- 그에 따라, 설계 및 시공 실무 전담 조직으로서 ‘교마찌야작사조(교마찌야사쿠지구미(京町家作事組))(1999)’, 교마찌야 거주자를 비롯해 교마찌야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조직으로서 ‘교마찌야친우회(교마찌야토모노카이(京町家友の会))(1999)’, 교마찌야의 임대나 매매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교류·발신시키기 위한 매개 조직으로서 ‘교마찌야정보센터(京町家情報センター)(2002)’의 3개 조직 발족
- 현재는 ‘교마찌야재생연구회/ 교마찌야작사조/ 교마찌야친우회/ 교마찌야정보센터’ 4개 조직으로 구성된 상위조직 ‘교마찌야 net’에 의해 연대협력체제 갖추

• 조직 발족 배경

- 일본 고도경제성장기부터 버블경제 이후, 교토시 역사적 도심부에 밀집한 교마찌야의 다수가 멸실 혹은 방치

- 교마찌야 멸실 가속화는 교토시의 역사적 도시 경관, 지역 커뮤니티, 지역 거주문화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교마찌야의 보전·재생을 위한 활동의 필요성 제기되어 1992년 교마찌야재생연구회 발족
- 교마찌야재생연구회에서는 교토시 역사적 도심부의 기존 교마찌야에 대한 거주자인식조사, 현황조사 등을 꾸준히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교마찌야 거주가 혹은 활용을 원하는 소유자들에게 교마찌야 설계·시공분야 전문가를 소개
- 전문가 알선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실무자들이 다수 관여하게 되고 교마찌야 설계·시공을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 교마찌야작사조 발족

• 교마찌야재생연구회의 주요 업무(그림30)

- 교마찌야 재생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마찌야 현황조사 실시
- 현황조사에서는 거주자 면담을 통해 거주자들이 교마찌야에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거주 시 불편 요소, 유지관리, 개보수의 애로사항 등)을 면담
- 교마찌야net의 모체 조직으로서 교마찌야 재생의 이념과 실천적 수법의 구축을 목표로 4개 조직으로 구성된 교마찌야net가 유기적으로 연대협력체제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총괄 조정자 역할
- 교마찌야재생연구회 회원은 건축가, 시공자, 연구자, 거주자 등 다양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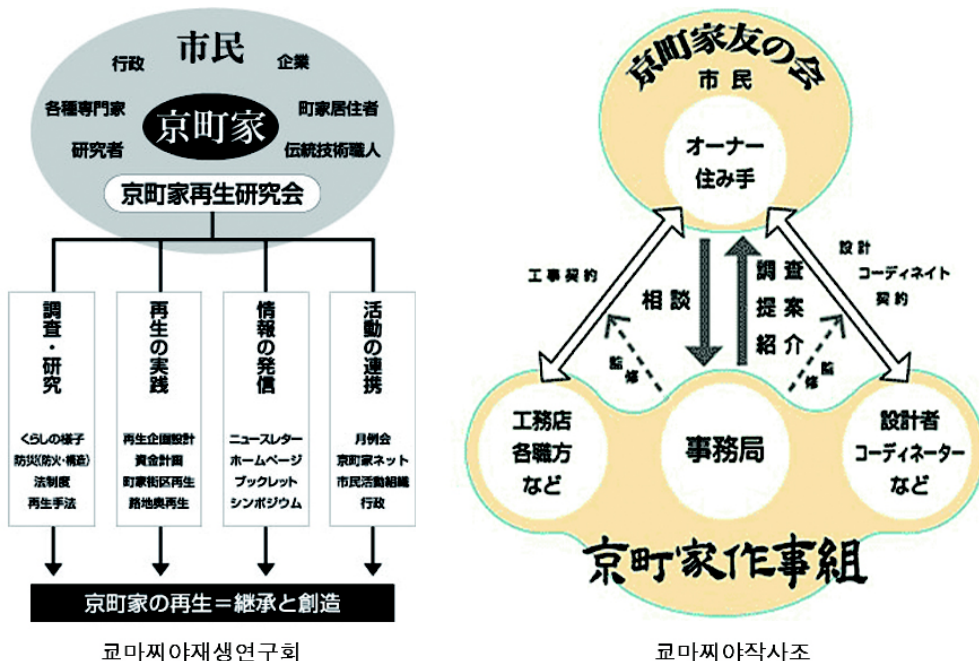


그림 30 조직의 주요 업무

(출처: 교마찌야 net HP <http://www.kyomachiya.net/saisei/sosiki/index.html>
<http://www.kyomachiya.net/sakuji/about/work.html>)

• 교마찌야작사조의 주요 업무(그림30)

- 교마찌야 개수공사에 관여하는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교마찌야 개수 수요에 대해 직접 수주 혹은 교마찌야 재생연구회의 알선을 통해 간접 수주 하여 개수 업무 수행
- 마찌야의 보존, 재생을 위한 상담, 조사, 제안 실시
- 설계자, 코디네이터 소개
- 현지 검사 및 개수 시 공법 검토, 공사비 견적 및 계약에 관한 조언, 개수설계 및 시공에 관한 감수, 교마찌야 정기검진(현장 모니터링) 실시
- 목공사/ 미장/ 창호/ 지붕/ 석공/ 표구/ 판금 등 교마찌야와 관련된 제분야의 약 40개 업체에서 실무자들이 가담
- 최근에는 전기, 수도, 냉난방 업체들도 가담
- 통상 1년에 약 20여 건의 교마찌야 개수 수요 대응, 현재까지 약 250건 대응
- 교마찌야 작사조에서 관여한 교마찌야 개수사례 견학회, 교마찌야 관련 세미나 기획 및 개최
- 교마찌야 개수 활동 광고 홍보(홈페이지 운영)
- 교마찌야작사조 활동을 위한 협력 체계: 마찌야 소유주와 교마찌야작사조의 의견 교환은 ‘교마찌야 친우회’에서의 만남과 조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짐
‘의뢰자: 개수 의뢰 → 교마찌야 작사조: 의뢰 수락 → 상담 및 현황 조사 → 필요한 공사 내용 및 공사 견적에 대한 조언 → 각 공정 관련 실무자 소개 → 공사 감수 → 착공 → 준공 → 준공 검사 보고 → 사후 관리’의 순서로 일 진행

• Q&A

- Q: 조직에 대한 지원 사항 유무는?
- A: 국가로부터의 지원 사항은 없다. 월드모뉴먼트의 교마찌야 개수 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해 당선되면 활동에 필요한 조성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조직 사무국 또한 그 조성금을 투입해 개수 및 활용한 사례이다. 그밖에 토요 타재단, 티파니재단 등에 조직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금을 받은 적은 있다.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공적 지원이 없는 대신 외부 요소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조직의 이념대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코지마 후사에 이사장]
- Q: 조직 활동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 A: 조직 운영비용은 회원들의 회비, 유지에 의한 기부금을 통해 확보된다.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인건비는 “0”.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이다. 정보 발신을 위한 소식지 인쇄 및 종이 구매 비용, 인쇄물 발송 등에 관련된 비용, 사무국 유지관리 비용 등을 최저한으로 지출한다. [코지마 후사에 이사장]
- Q: 교마찌야작사조에서 교마찌야의 개수공사에 관여한다. 그에 대한 대가는?
- A: 없다. 누군가가 영리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 조직의 균형이 깨진다. 그것을 알기에 구성원 서로 어느 정도의 희생을 안고 협력한다. [키노시타 류이치 대표 이사]
- Q: 물리적 자원이 결여된 상황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 A: 보람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의 활동을 통해 교마찌야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마찌야 소유자, 거주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그들을 통해 교마찌야가 건설적인 방식으로 존속해 가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이번 auri국가한옥센터의 여러분이 방문해 주신 것처럼, 우리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배울 점을 찾기 위해 방문하는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 [코지마 후사에 이사장]



그림 31 교마찌야재생연구회 · 교마찌야작사조 관계자 면담(2018.4.3)



그림 32 코마찌야재생연구회 사무국

(2)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 견학⁸⁾

■ 개요

- 일시: 2018년 4월 4일(수) 09:00~12:00
- 장소: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京都市景観・まちづくりセンター)
(〒600-8127 京都市下京区西木屋町通上ノ口上る梅湊町83-1)

■ 견학 내용⁹⁾

• 기관 설립이념

- 주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십에 의한 마찌즈쿠리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
-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 설립 이래 ‘지역 마찌즈쿠리 활동 촉진’ 및 ‘지역과 공존하는 토지 이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전문가, 학식자,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활동 추진
- 지역 마찌즈쿠리 활동 촉진
저출산 고령화 현상, 지역 산업 쇠퇴와 고용 감소, 개인주의, 빈집 증가 등의 도시 문제에 의해 소멸되는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로부터 축적되어 온 교토의 역사, 문화, 경관, 산업, 인재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나가는 시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역과 공존하는 토지이용 촉진
교토 주민들이 길러낸 지혜와 기술의 결집이자 지역 거주문화의 계승과 역사적 도시 경관의 기반이 되는 귀중한 자산인 교마찌야 등 전통적 건축물의 멸실, 방치, 무분별한 철거 및 재건축 현상으로 인해 지역 거주환경 급변
기존 주민 및 토지 소유주, 건물주, 개발업자, 신규 주민 등 각각의 주체가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개별 건축물의 용도·의장·형태를 만들어 가도록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위한 시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마찌야를 비롯한 지역 건축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거주환경과 경관의 보전·창출 도모

8) 현지 전문가 추천에 따라, 견학대상을 타케나카목수도구관(竹中大工道具館)에서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京都市景観・まちづくりセンター)로 변경

9) 견학은 기관 관계자와의 별도 면담 없이 자유 관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 보고서에 정리한 기관 개요는 기관 방문 시 취득한 자료 및 기관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의함(<http://kyoto-machisen.jp/about/>, 검색일: 2018.5.5)

• 기관 주요 사업

- 시민 활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1): 지역 마찌즈쿠리 활동 지원

양호한 경관 형성, 지역 커뮤니티 형성 등을 위한 제반 활동에 기업·행정·전문가·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각종 시민 활동 지원

○마찌즈쿠리 활동 상담: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마찌즈쿠리 활동 관련 상담 요청에 대응해 다양한 조언과 각종 정보 제공

○마찌즈쿠리 활동 조성: 마찌즈쿠리 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각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 조성(助成) 사업 실시

○마찌즈쿠리 전문가 파견: 학습회 운영, 조사 활동, 마찌즈쿠리 제도 활용(지구 계획, 지역경관만들기 협의회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전문적 조언, 마찌즈쿠리 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자 역할을 할 전문가 파견

- 시민 활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2): 교마찌야 재생 지원

교토의 역사·문화의 상징인 교마찌야가 적절한 방식으로 보전·재생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각종 지원 실시

○‘교마찌야 무엇이든 상담(京町家なんでも相談)’코너 운영: 교마찌야의 유지·계승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업자, 목수, 건축사 등의 전문가와 연대하여 상담 수요에 대응

○건물조사보고서 작성: 교마찌야의 문화적 가치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조사보고서를 작성. 경관중요건조물 및 국가등록유형문화재 등으로의 등록을 지원하고, 교마찌야의 보전·재생 지원

○교마찌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8년, 2009년도의 교마찌야 마찌즈쿠리 조사에 의해 파악된 약 48,000건의 교마찌야의 기본정보를 GIS상에서 관리

○‘교마찌야 등 계승 네트(京町家等継承ネット)’발족: 교마찌야의 적절한 보전·재생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교마찌야 계승 네트(京町家継承ネット)’의 사무국으로써 교마찌야 등의 계승에 관련된 단체,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와 함께 다양한 노력 시도. ‘교마찌야 등 네트’는 건축·부동산·법률 분야 전문가와 금융기관·행정기관 등으로 구성¹⁰⁾

○‘마치-야(MATCH-YA)’프로젝트: ‘교마찌야 등 네트’가 수행하는 활동 중 하나로, 교마찌야 등 지역 건축자산의 보전·활용·계승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자, 교마찌야 수요자를 매칭시켜 줌으로써(알선) 새로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¹¹⁾

10) <http://kyoto-machisen.jp/keishonet/>

11) <http://kyoto-matchya.com/>

- 교마찌야 등의 보전·재생 현황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2015년도에 각종 직능 단체의 협력을 토대로 교마찌야 등 건축자산의 시공, 설계, 활용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마찌야 등의 보전·재생 현황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에서는 전문가, 교토시(행정)와의 연대 협력을 토대로 관련 사업 확충 및 사업 방향성을 검토¹²⁾¹³⁾
-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 재생을 위한 사업
 - ‘교마찌야 마찌즈쿠리 펀드’ 조성: 2005년 설립한 ‘교마찌야 마찌즈쿠리 펀드’ 자금을 활용해 지역 마찌즈쿠리 효과 제고 및 양호한 도시경관 형성으로 이어지는 교마찌야 개수, 가로경관 수복 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성 사업¹⁴⁾
 - ‘교마찌야 카르테(진료차트)’: 교마찌야의 가치를 ‘기초정보/ 문화정보/ 건물정보 / 공간구획도’로 나누어 정리. 교마찌야 소유자 및 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여 교마찌야의 적절한 유지·관리·계승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¹⁵⁾¹⁶⁾
- 정보 발신(1): 세미나, 심포지엄
 - ‘경관·마찌즈쿠리대학’ 강좌 운영: 교토의 경관·마찌즈쿠리에 대해 다양한 시점에서 학습하고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무료)으로 강좌에 관심 있는 누구나가 참여 가능¹⁷⁾
 - ‘경관·마찌즈쿠리심포지엄’ 개최: 지역 마찌즈쿠리 활동의 활성화, 교마찌야 보전·재생을 위한 다양한 과제 발굴, 각 과제의 해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관·학·민의 연대 협력에 의한 심포지엄 개최
- 정보 발신(2): 각종 미디어의 개발, 활용

당 재단(공익재단법인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의 활동 및 경관·마찌즈쿠리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발신

 - 계간지 「교마찌 공방(京まち工房)」 발행¹⁸⁾
 -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 HP운영¹⁹⁾²⁰⁾
 - 라디오 활용(커뮤니티FM)²¹⁾
 - 각종 계발서, 기술자료 등 발매

12) 앙케이트 조사 집계 분석 보고서 <http://kyoto-machisen.jp/about/detail/img/1101mye20161001pub.pdf>

13) 앙케이트 조사 집계 개요 보고서 <http://kyoto-machisen.jp/about/detail/img/1101sum20161001.pdf>

14) 교마찌야 마찌즈쿠리 펀드 리플릿 <http://kyoto-machisen.jp/about/detail/img/fund.pdf>

15) 교마찌야 카르테 리플릿 <http://kyoto-machisen.jp/about/detail/img/25karte.pdf>

16) 교마찌야 카르테 관련 인터넷페이지 <http://kyoto-machisen.jp/about/detail/karte.html>

17) 경관·마찌즈쿠리대학 강좌 관련 인터넷페이지 <http://kyoto-machisen.jp/event/>

18) 계간지 「교마찌 공방(京まち工房)」 열람 인터넷페이지 <http://kyoto-machisen.jp/letter/>

19)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 홈페이지 <http://kyoto-machisen.jp/about/>

20)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 홈페이지 <http://machi.hitomachi-kyoto.jp/>

21) 커뮤니티FM 홈페이지 <http://radiocafe.jp/200501001/>

- 교류 및 협동 활동
 - ‘쿄마찌야 등 계승 네트(京町家等継承ネット)’ 운영
 - ‘월드모뉴먼트재단’과의 연대 협력(쿄마찌야 재생 프로젝트)²²⁾
 - ‘쿄마찌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젝트²³⁾
- 조사 연구
 - ‘근대 마찌즈쿠리사’ 연구(2013년~)
 - 도시재생모델 조사(2004년~2006년)²⁴⁾²⁵⁾²⁶⁾
 - ‘쿄마찌야 마찌즈쿠리 조사’ 수행²⁷⁾
 - 제1회(1998년)/ 제2회(2003년)/ 제3회(2008년~2009년)
- 인재 육성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 강사 파견 프로그램 운영/ 경관 에리어 매니지먼트 강좌 운영²⁸⁾/ 문화재 매니저 육성 강좌 운영



그림 33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 전경

22) ‘쿄마찌야 재생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kyoto-machisen.jp/wmf-machiya-project/>

23) ‘쿄마찌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홈페이지 <http://kmair.anewal.net/>

24) <https://www.kantei.go.jp/jp/singi/tiiki/toshisaisei/05suisin/kinki/04suisin/h16/05.html>

25) <https://www.kantei.go.jp/jp/singi/tiiki/toshisaisei/05suisin/kinki/04suisin/h17/08.html>

26) <https://www.kantei.go.jp/jp/singi/tiiki/toshisaisei/05suisin/kinki/04suisin/h18/07.html>

27) ‘쿄마찌야 마찌즈쿠리 조사’ 관련 인터넷페이지 <http://kyoto-machisen.jp/result/detail/index8.html>

28) NPO교토 경관 포럼 홈페이지 <http://kyotokeikan.org/>



그림 34 공익재단법인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 시설 견학

(3) 교마찌야 보전·활용사례 하타케주택 견학

■ 개요

- 일시: 2018년 4월 2일(월) 15:00~18:00
- 장소: 교토 하타케주택(秦家住宅)
(〒600-8469 京都市下京区油小路仏光寺下ル太子山町594番地)
- 면담 대상: 거주자 하타 메구미(秦家 めぐみ) 씨

■ 견학 내용²⁹⁾

• 하타케주택 개요

- 교토시 유형문화재 등록
- 1700년 기응환(奇應丸)을 제조, 판매하는 상점을 창업해 12대 동안 가업을 이었으며 현재 거주자 세대에서 종료
- 겐지 원년(元治元年, 1864)에 일어난 겐지의 난에 의해 한차례 소실 후, 메이지(明治) 2년(1869)에 재건
- 정면 구조는 폭이 5칸, 남쪽 세칸 반은 2층, 북측 1칸 반은 1층 규모
- 현재 견학 프로그램 운영자인 하타 메구미 씨와 그녀의 어머니 둘이 거주 중

• 하타케주택 공개 취지와 프로그램

- 모든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³⁰⁾
- 실제로 거주 중인 주택의 일부를 견학 공간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잊어가고 있는 교마찌야의 생활문화를 알리고 싶기 때문
- 견학 프로그램 이외에 교마찌야의 부엌에서 참여하는 요리교실,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하는 교마찌야 생활문화 체험학습(다도, 요리 등), 교마찌야 가정식 식사 모임, 소규모 이벤트(시 낭독회, 악기연주회 등) 개최, 회의 공간 임대

• 교마찌야(京町家)의 공간구조

- 도로에 면한 부분에는 거주자가 생업을 영위하는 상점, 후면에는 가족 생활공간

29) 하타케주택에서는 사전예약제(유료)에 의해 거주자로부터 집안 내력, 생활공간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하는 취지, 교마찌야의 공간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견학하는 방식으로 견학프로그램 운영

30) 견학 프로그램의 경우 성인 1,000엔, 고등학생 800엔, 중학생 500엔

- 건물과 정원이 세트로 하나의 집을 구성
- ‘건물+정원’에 의한 교마찌야의 공간구조는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의 밀도를 조절하는 주요한 장치로 작용
- 정원은 자연적으로 환기, 채광을 할 수 있는 환경조정공간이자 관상용 정원을 가꿈으로써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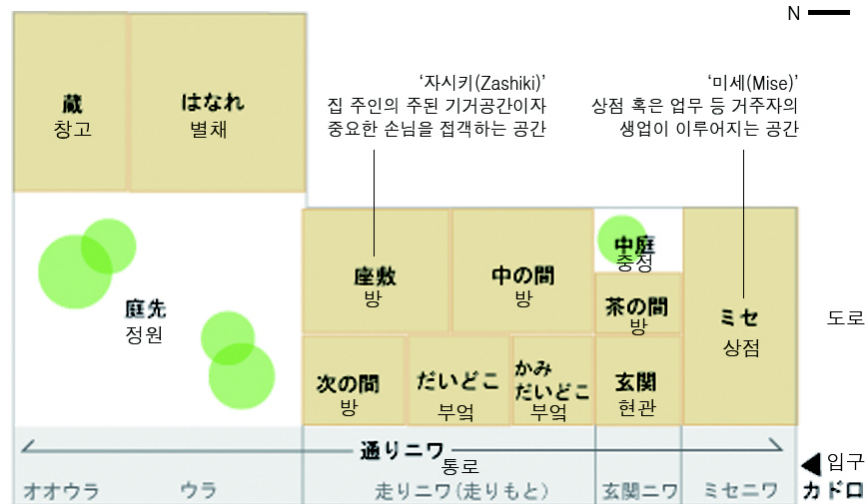


그림 35 하타케주택 1층 평면구성(원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원자료 출처: 하타케주택 HP <http://www.hata-ke.jp/01hata-ke/tatemono.html>)



그림 36 하타케주택 전경

• Q&A

- Q: 주택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은가?
- A: 겨울에 춥다는 점, 조심조심 움직여야 한다는 점 등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편리해 졌다. 에어컨으로 냉난방을 하고 부엌에서는 가스를 사용한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살았던 이 집에서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현대적 도구를 사용하고 현대인으로 살아간다. 이 집과 우리 집안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내력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거주자 하타 메구미 씨]
- Q: 선조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교마찌야에서의 생활에 대한 향수, 추억으로부터 형성된 애착을 공감한다. 주택으로써의 교마찌야의 장점은 무엇인가?
- A: 정원과 내부공간이 하나의 집을 이루는 공간구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자시키(Zashiki)(그림33)에 앉아서 정원을 바라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한다.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에는 방 안에서 풍경을 바라보고 빗소리를 듣기도 한다. 봄이 되면 정원에 새들이 찾아 와 지저귀다. 사계절을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정원에 면한 창호부터 도로에 면한 창호까지 다 개방하면 한여름에도 바람이 통하고 시원하다. 실제로 한여름 이외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창호를 열고 닫음에 의해서 계절에 따라 대응해 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거주자 하타 메구미 씨]
- Q: 유지관리가 번거롭고 전통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개보수 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부담되지 않는가?
- A: 부담 된다. 비용도 많이 든다. 이 집이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개보수 시 지원금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면 격려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이다. 선택의 대가라고 받아들인다. [거주자 하타 메구미 씨]
- Q: 최근에 교토 도심부에 교마찌야를 숙박시설이나 식음료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 빈집을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생활문화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아쉽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A: 지적인 대로이다. 현재 교마찌야의 보전, 재생 방향성은 경제논리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동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교토시에서는 숙박시설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마찌야의 용도 변경을 후하게 허가해 주고 있다. 주택으로써의 교마찌야가 집적해 있는 거주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상주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다. 조용하고 안정된 동네 분위기가 관광객들의 발길로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주자 하타 메구미 씨]



그림 37 코마찌야 보전·활용사례 하타케주택 거주자 면담(2018.4.2.)

- Q: 료마찌야의 생활문화를 현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생활공간의 일부를 일반공개하고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대해 공적 지원을 기대한 적 없는가?
- A: 료마찌야의 존재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근래 일이다. 기존 주택 활용의 중요성, 지역의 역사적 건축자산, 경관 계승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이전까지는 료마찌야는 료토 어디에나 있는 흔하고 당연한 존재였다. 지역 거주문화, 경관 형성이라는 명분에 따라 료마찌야의 보전과 재생을 위해 힘쓰는 거주자, 소유자를 보호하고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료마찌야는 어디까지나 사유물이고, 사유물에 일률적으로 공적재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거주자 하타 메구미 씨]



그림 38 료마찌야 보전 · 활용사례 하타케주택 견학

제3장 출장 성과

• 일본 목조건축 생산 현황과 시사점

- 일본은 전후 주택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 국가 정책적으로 ‘목조주택’ 공급을 주요 방책으로 대응했으며, 국민 정서상으로도 비목조주택보다 목조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 우리나라와 실정이 다름
- 일본의 전통적 목조주택 생산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이음과 맞춤에 의해 축조하는 ‘전통공법’과 그 이후 법에 의해 가새부재 및 콘크리트기초, 금속 접합을 통해 내진성능을 향상하도록 규정된 ‘재래공법’의 두 가지
- 1950년의 건축기준법에 의해 전통공법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가 1990년대 말~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계내력검사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성능을 담보할 경우 전통공법으로 축조 가능하도록 법 개정
- 국민정서 상 목조주택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통공법의 경우 고가의 비용 때문에 그 수요가 적다는 점에서 한국의 한옥 건설시장이 아직까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현황과 유사
- 현대의 기술을 응용해 외관은 전통적 목조주택을 답습하면서 내구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있는 한편, 전통공법의 전승에 대한 필요성, 지진 시 진동에 유연하게 흔들리는 전통공법의 장점에 대한 재평가의 움직임 확대
- 전통공법에 의한 주택도 재래공법에 의한 주택도 내진성능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어느 한쪽을 배제하는 법제도는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존재
- 전통 목조주택의 현대화와 전통 목조주택 기술의 전승, 수요자의 가치관과 필요에 따라 공법을 선택하고 주택을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제도의 필요성을 토대로 다양한 특례와 지역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통기술과 지역의 전통적 거주문화, 정관자원을 유지하고 계승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 간 발생한 지진에 대한 경각심으로부터 한옥의 내진성능을 담보하도록 법제도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법대로라면 과거 일본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통공법에 의한 한옥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
- 한옥 관련 법제도 개선 시, 물리적 성능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한옥의 가치, 한옥의 현대화와 전통기술의 전승 등 여러 사항을 균형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 마찬가지로 한옥 전문인력(시공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특정 공법이나 특정 시기의 한옥에 국한된 교육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옥의 물리적 성능 담보와 전통기술의 전승이라는 양면을 조화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일본 전통 목조건축기술자 양성 관련 정책 및 기관 운영현황과 시사점

- 학교법인 교토건축학원 ‘교토건축전문학교’에서의 인력 양성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적 지원제도는 부재하며, 교토시에서 재료비 일부를 보조하고는 있지만 기관 운영을 위한 전체 예산에서 지극히 일부에 불과함
- 교토건축전문학교의 경우 수업료는 전액 학생들 자비 부담으로 필요에 따라 대출형 장학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학생들이 해마다 입학 지원을 하는 것은 학교 졸업 시 부여되는 각종 자격시험 수험요건을 갖추기 위함
- 일본의 경우 목조건축 관련 자격이 일반건축과 분리되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목조건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건축사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이 같은 조건이 학교의 입학생 유치, 교육의 질 담보에 영향을 줌
- 건축사자격시험 수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목조건축뿐만 아니라 비목조건축을 포함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과정 평가 기준은 졸업생의 학식, 실무에 대한 기초소양을 대내외적으로 검증해 주는 도구가 됨
- 전통 목조건축에 주력하는 주식회사 ‘야스이모쿠공무점’의 사원 양성 현황을 파악한 결과, 회사 경영방침에 의해 목수 인력을 비상근이 아닌 상근인력으로 보유함으로써 목수들의 고용안정 확보
- 현장 위주의 도제식 교육을 통해 ‘도편수-중견목수-신입목수’로 이어지는 세대간 기능 전수가 이루어지며, 사원들이 전통건축의 적절한 보존, 수리 기술을 배양하도록 학식자들과의 교류를 장려함으로써 전통건축의 설계, 수복, 역사이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 공익사단법인 ‘카나자와직인대학교’에서의 인력 양성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축 초보자 혹은 기초소양은 있으나 심화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여타의 건축전문학교와 그 성격이 다름
- 카나자와직인대학교의 경우 민간에 의한 자발적 설립이 아니라 카나자와 시정 비전에 의해 전폭적으로 공적 지원을 받아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이미 실무경력 10년 정도의 중견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전통기능의 전수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전통건축의 수리 보존에 대한 수요가 빈번한 교토, 나라 등과 달리 관련 인력이 부족하고 차세대로의 기능 전수 환경이 열악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20여 년의 교육사업 지속 결과, 대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으며, 당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계승을 중시한 시장의 비전 또한 재평가 되고 있음
- 교토건축전문학교와 카나자와직인대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목공수업뿐만 아니라 기초부터 마감에 이르는 전과정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점
- 우리나라의 한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있어서 특히 시공인력 양성의

경우 목공수업에 치우친 현황이 파악된 바,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졸업생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에서 마감에 이르는 종합 교육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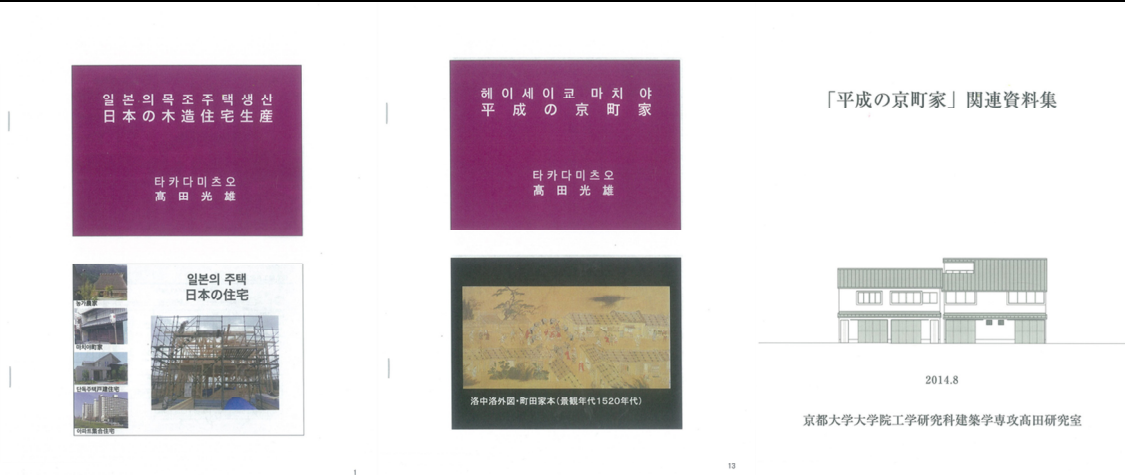
- 일본의 경우 기초에서 마감에 이르는 각 공정의 업역이 분화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 경계가 아직까지는 불명확하므로 각 공정에 따른 종합적·전문적 교육을 통해 한옥 시공인력 양성체계의 고도화가 필요
- 일본의 전통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이 사설 교육기관에 의해 자생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목조주택에 대한 국민수요, 목조주택 진흥에 대한 정책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옥건축에 대한 제도적 유도·장려 없이 건전한 한옥 전문인력 양성을 기대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
- 전통 건축기술의 전승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카나자와에서 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전문인력 양성하고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 카나자와직인대학교의 사례는 공적지원의 순기능을 보여줌
- 한옥건축에 대한 수요가 얼마큼인가의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건축문화, 거주문화의 근간이 되는 한옥의 계승·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은 중요
- 이를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한옥산업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실행 체계가 미비한 상황
- 향후, 일본 사례 조사내용을 음미함과 더불어 한옥 전문인력 양성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여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한옥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 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일본 전통 목조건축 진흥 관련 기관 운영현황과 시사점

- 교토시 경관·마찌즈쿠리센터는 카나자와직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지원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교토시의 출자와 국고 지원에 의해 설립된 기관
- 기관의 비전은 지역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지역 주민/ 전문가(실무자)/ 학식자/ 행정)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마찌야 보전·활용 및 경관 마찌즈쿠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돕는 ‘허브’가 되는 것
- 관련 상담에 최초 대응자로서 ‘상담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다양한 주체가 지닌 다양한 고민사항을 통해 교마찌야 보전·활용 및 경관 마찌즈쿠리 활동을 위해 재단이 대응해야 할 추가적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 다양한 주체가 교마찌야 보전·활용 및 경관 마찌즈쿠리 활동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법제도,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총망라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 공유의 장’ 역할을 함

-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마찌야·마찌즈쿠리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하고 관련된 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의 주요 사업으로서 매년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교육의 장’ 역할을 함
- 교마찌야재생연구회·교마찌야작사조는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족된 조직으로 목조주택 진흥 관련 활동을 추진
- 재정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들이 모여 인적자원(실무자·학식자·시민(지역주민, 마찌야 거주자, 소유자 등))/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연대협력 체제에 의해 역할분담을 지속
- 이들 조직의 경우 전통 목조주택 진흥을 둘러싼 다양한 활동이 개개인의 가치관 단과 노력의 결집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가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 구성원들이 보람을 느껴 물질 자원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성장 지속
- 교마찌야 보전·활용사례로써 방문한 하타케 주택 거주자 면담 및 견학을 통해서도 전통적 거주문화, 공간문화 계승에 있어 공적 지원 없이도 활동이 지속되는 데에는 거주자, 소유자 등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
- 사유물로써의 전통 목조주택 보전·활용에 공적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의견이 공통적
- 사유물로써의 한옥 보전·활용에 공적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지원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한옥 진흥 관련 기관의 이상적인 모델 설정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한옥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부터 각 분야 전문가, 행정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허브 기관으로써의 역할 모델을 설정하고 운영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 일본 유관기관들의 경우 전통 목조주택 진흥을 위한 각종 활동을 구체화하기 이전에 전통 목조주택을 둘러싼 각종 통계, 거주자 면담 등 정성적·정량적 실태조사를 통해 기관 설립의 타당성을 확보했음
- 한옥 진흥기관 설립의 타당성과 향후 기관 설립 시 바람직한 모델의 설정을 위해서는 한옥을 둘러싼 실태를 면밀히 진단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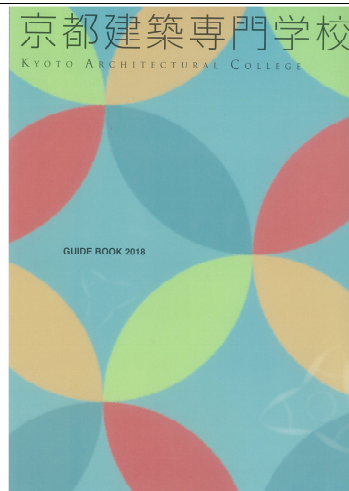
[부록] 취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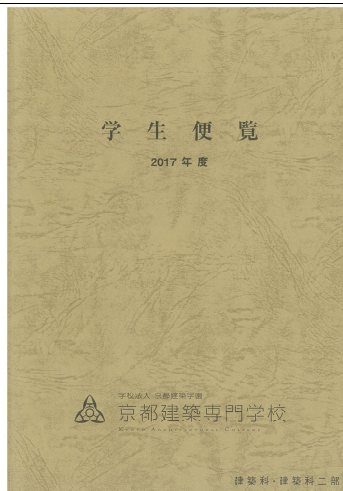
일본의 목조주택 생산
_타카다 미츠오 교수 강연자료

헤이세이쿄마치야
_타카다 미츠오 교수 강연자료

‘헤이세이쿄마치야’ 관련 자료집
_교토대학교대학원 타카다 연구실



교토건축전문학교 안내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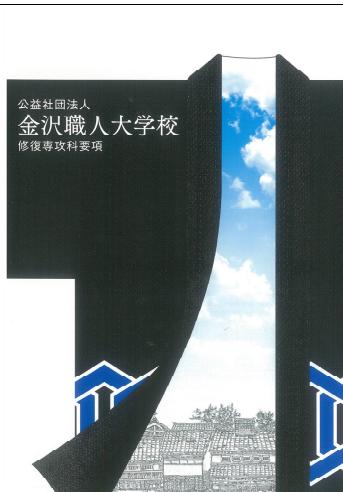
교토건축전문학교 학생편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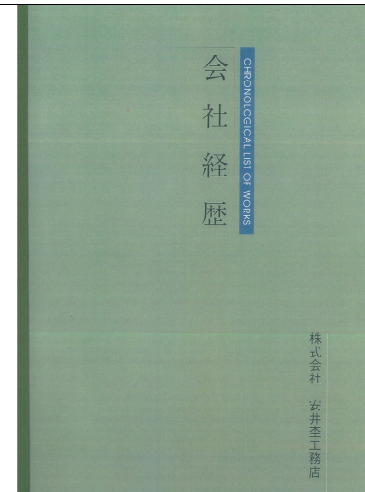
목조 전통기술의 계승에 대해서
_(주)야스이모쿠공무점 사장 기고



카나자와직인대학교 본과
안내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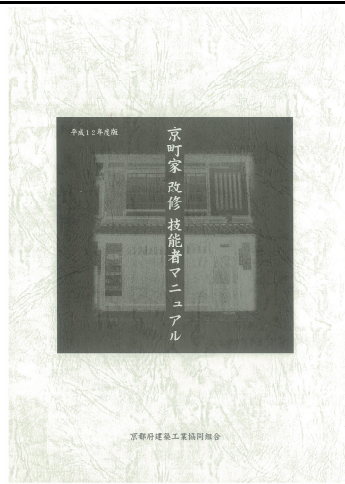
카나자와직인대학교 수복전공과
안내 책자



(주)야스이모쿠공무점 실적 안내 책자



쿄마찌야 개수 입문서
_쿄도부건축공업협동조합



쿄마찌야 개수 기능자 매뉴얼
_쿄도부건축공업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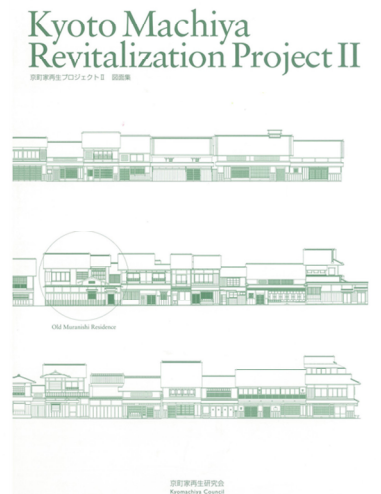
토장벽과 화장처마의 방화 매뉴얼
_쿄도시건축공업협동조합



쿄마찌야재생연구회, 쿄마찌야작사조
리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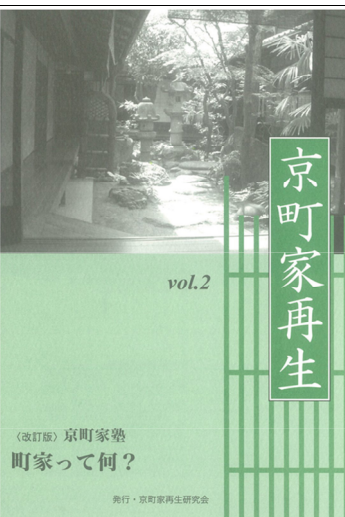
『쿄마찌야 재생프로젝트1』
_쿄마찌야작사조



『쿄마찌야 재생프로젝트2』
_쿄마찌야작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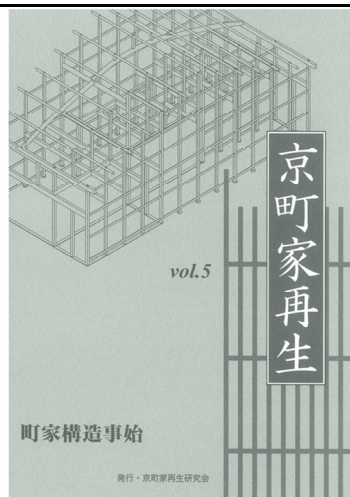
쿄마찌야의 삶
_쿄마찌야재생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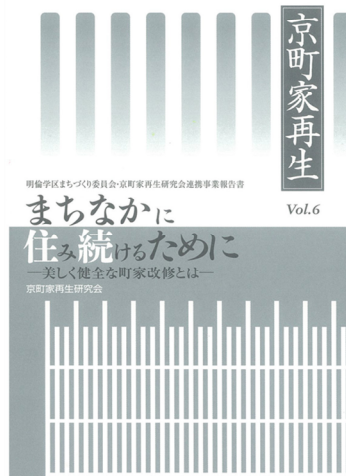
쿄마찌야 재생
vol.2_쿄마찌야재생연구회



쿄마찌야 재생
vol.3_쿄마찌야재생연구회



쿄마찌야 재생
vol.5_쿄마찌야재생연구회



쿄마찌야 재생
vol.6_쿄마찌야재생연구회



『쿄마찌야의 재생』



쿄토시 경관·마찌즈くり센터 개요
리플릿



쿄토시 경관·마찌즈くり센터 이용
길잡이 리플릿



『쿄마찌야의 개수』
_쿄토시 경관·마찌즈くり센터



나의 집·삶을 이어 받은 쿄마찌야
_쿄토시 경관·마찌즈くり센터



쿄토시 역사적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_쿄토시



쿄토시 역사적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_쿄토시



역사적건조물 등의 수리·수경에 관한
조성제도 소개 리플릿_교토시

『교토 마찌야 레스토랑 가이드』